

# 6차 산업화 인증업체 전문인력 실태 조사

마 상 진 연구 위원  
김 종 인 부 연구 위원  
정 기 수 국민농업포럼

## 연구 담당

마상진      연구위원  
김종인      부연구위원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이사

## 요 약

---

- 6차 산업화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기본실태, 사업에 대한 전문성,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현황 등을 조사하여 6차 산업화 관련 전문인력의 현황 및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였음. 선정된 20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8월 3일부터 2015년 9월 4일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음.
- 최근 들어 6차 산업화 사업체의 속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법인중심형 사업체의 수와 비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직판장·직매장을 주사업으로 하는 비중이 늘어나거나 특용작물과 축산 등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체가 향후 사업규모·영역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큼.
- 6차 산업화 사업체는 생산 기술 등 생산관련 영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마케팅·재무 등과 같은 경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낮게 나타나 이들 영역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6차 산업화 사업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향후 고용확대 가능성이 있고, 인건비 지원까지 시행된다면 고용규모 확대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공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농업계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6차 산업화 사업체와의 연계 및 고용 실적이 저조하나, 현장수요에 기반한 지식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 등을 노력 등을 더해 나가야 할 것임.



# 차 례

---

## 제1장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 1
- 2. 조사 방법 ..... 2
- 3. 자료 분석 ..... 4

## 제2장 조사결과

- 1. 사업체 기본 실태 ..... 5
- 2. 사업 전문성 및 개발요구 ..... 29
- 3. 농업계 학교 연계 현황 ..... 44

## 제3장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53
- 2. 시사점 ..... 59

- 부록: 6차 산업화 인증업체 전문인력 실태 조사지 ..... 62

## 표 차례

---

### 제2장 조사결과

표 2- 1.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연한 .....	6
표 2- 2. 개별특성에 따른 조직 형태 .....	8
표 2- 3. 개별특성에 따른 조직 유형 .....	9
표 2- 4.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내용(주사업) .....	11
표 2- 5. 개별특성에 따른 주농산물(생산액 기준) .....	13
표 2- 6.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유형 .....	14
표 2- 7. 개별특성에 따른 매출액 .....	16
표 2- 8. 개별특성에 따른 영업이익률 .....	17
표 2- 9. 개별특성에 따른 가족 노동인력(본인 이외) .....	19
표 2-10. 개별특성에 따른 상근 고용자(급료 지급) .....	20
표 2-11. 개별특성에 따른 상근 고용자 확보 지역 .....	21
표 2-12. 개별특성에 따른 임시 고용자 확보 지역 .....	22
표 2-13. 개별특성에 따른 참여 농가 수 .....	23
표 2-14.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발전단계 .....	25
표 2-15.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규모 확장 계획 .....	26
표 2-16.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영역 확장 계획 .....	27
표 2-17.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애로(복수응답) .....	28
표 2-18. 개별특성에 따른 영역별 전문성(복수응답) .....	30
표 2-19. 개별특성에 따른 필요 전문성 .....	32
표 2-20.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복수응답) .....	35
표 2-21.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인력 적정 보수 수준 .....	37
표 2-22. 개별특성에 따른 채용경로 .....	39
표 2-23. 개별특성에 따른 경영자의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 .....	41

표 2-24.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실무인력)의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	41
표 2-25.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 방안	43
표 2-26.	개별특성에 따른 농업계 학교 역할 평가	45
표 2-27.	개별특성에 따른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경험	47
표 2-28.	개별특성에 따른 농업계 학생 고용 경험	48
표 2-29.	개별특성에 따른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	50
표 2-30.	개별특성에 따른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52

## 그림 차례

---

### 제1장 조사개요

그림 1- 1. 자료처리 절차 .....	4
------------------------	---

### 제2장 조사결과

그림 2- 1. 사업 연한 .....	5
그림 2- 2. 조직 형태 .....	7
그림 2- 3. 조직 유형 .....	8
그림 2- 4. 사업 내용(복수응답) .....	10
그림 2- 5. 사업 내용(주사업) .....	10
그림 2- 6. 생산 농산물 .....	12
그림 2- 7. 주농산물(생산액 기준) .....	12
그림 2- 8. 사업 유형 .....	14
그림 2- 9. 매출액 .....	15
그림 2-10.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	17
그림 2-11. 가족 노동인력(본인 이외) .....	18
그림 2-12. 상근 고용자(급료 지급) .....	18
그림 2-13. 상근 고용자 확보 지역 .....	20
그림 2-14. 임시 고용자 확보 지역 .....	21
그림 2-15. 참여 농가 수 .....	23
그림 2-16. 사업 발전단계 .....	24
그림 2-17. 사업 확장 계획 .....	26
그림 2-18. 애로사항(복수응답) .....	27
그림 2-19. 영역별 전문성 .....	29
그림 2-20. 필요로 하는 전문성 .....	31



그림 2-21.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	33
그림 2-22.	전문인력 현황(복수응답)	34
그림 2-23.	전문인력 적정 보수 수준	36
그림 2-24.	전문인력 채용 경로	38
그림 2-25.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 및 교육·훈련 여부	40
그림 2-26.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 방안	42
그림 2-27.	농업계 학교 평가	44
그림 2-28.	농업계 학교 연계 경험	46
그림 2-29.	농업계 학생 고용	48
그림 2-30.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	49
그림 2-31.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51



# 제 1 장

---

## 조 사 개 요

### 1. 조사 목적

-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의 일환으로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대책’이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2015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다양한 농식품 유관 기관에 의해 수많은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구성원의 상당수는 저학력자이고, 고령화된 상황으로 6차 산업화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임.
- 이 조사는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대책’ 중 농업 주체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6차 산업 (예비)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6차 산업화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2. 조사 방법

###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2014년에 농업 6차 산업 예비사업자로 인증 받은 업체(379개) 중 사업유형 및 지역을 고려하여 205개 사업체를 선정함
  - 정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방안’을 마련(’13. 7월)하며, 관련 법<sup>1</sup>이 시행되기 이전에 6차 산업화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6차 산업 예비사업자’로 인증하고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
- 선정된 사업체(205개)에 대하여 2015년 8월 3일부터 2015년 9월 4일에 걸쳐 전문 조사업체(국민농업포럼)에 의해 조사가 수행되었음.

### 2.2. 조사 문항

- 조사 문항은 사업체 기본실태, 사업 전문성, 농업계 학교 연계현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체 기본실태 영역에서는 사업 연한, 조직 형태, 조직 유형, 사업내용, 생산 농산물, 사업유형, 매출 현황, 인력 현황, 사업 발전단계, 사업 확장 계획, 애로사항 등을 파악
  - 사업 전문성 및 개발요구 영역에서는 6차 산업화 분야별 전문성, 필요로 하는 전문성,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 인식, 전문인력 현황, 전문인력 보수 수준, 전문인력 채용 경로,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방안 등을 조사
  - 농업계 학교 연계 현황 영역에서는 농업계 학교 평가, 농업계 학교 연계

---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5. 6. 4.부터 시행.

경험, 농업계 학생 고용 경험,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등을 파악

- 응답자 특성으로는 사업체에서 본인의 위상, 경영주의 학력, 연령, 성별과 귀농·귀촌 유형, 영농(사업)기반 승계 여부, 사업체 실무인력 중 귀농·귀촌자의 비중 등을 조사하였음.

### 2.3.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일반특성으로 사업체에서 본인의 위상, 경영주의 학력, 경영주의 연령, 경영주의 성별, 귀농·귀촌 유형, 영농(사업)기반 승계 여부, 사업체 실무인력 중 귀농·귀촌자 비중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체에서 본인의 위상은 경영주가 53.2%, 상근 임원이나 가족이 39.0%, 경영주 가족이 7.8%였음.
- 경영주의 성별은 남성이 73.7%를 차지했고, 학력별로는 대졸이 39.0%, 고졸이 29.8%, 대학원졸 이상이 17.1%로 주를 이루었으며, 이외에도 전문대졸이 10.7%, 중졸이 2.0%, 초졸 이하가 1.5%였음.
- 경영주의 연령은 51~60세가 44.9%, 41~50세가 29.8%, 61세 이상이 17.1%, 40세 이하가 8.3%였음.
- 경영주의 귀농·귀촌 유형별로는 귀농이 아닌 경우가 36.4%였으나, 그 외에 고향으로 귀농이 27.8%, 도시로부터의 귀농이 19.0%, 타 지역으로부터의 귀농<sup>2</sup>이 14.6%로서 귀농자가 61.4%를 차지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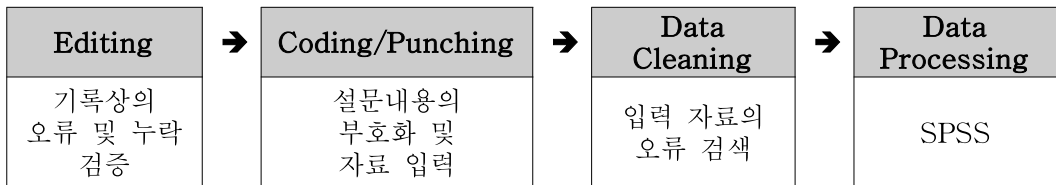
<sup>2</sup> 농촌 출생이면서 도시로 취업했다가 타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경우를 의미함.

- 영농(사업)기반을 승계한 경우는 29.8%였음.
- 사업체 전문(실무)인력 중 귀농·귀촌자 비중은 10% 미만이 44.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10~30%가 19.0%, 30~50%가 12.2%, 50~70%는 9.8%, 90% 이상은 9.3%였음.

### 3. 자료 분석

-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그림 1-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분석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를 활용하였음.

그림 1-1. 자료처리 절차



- 자료는 일차적으로 빈도분석을 통하여 ‘6차 산업화 전문인력의 현황’과 ‘6차 산업화 업체들의 필요와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였음.
- 한편,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주요특성(사업 연한, 조직 유형, 사업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 사업 연한은 ‘3년 미만’, ‘3~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 조직 유형은 ‘개별농가형’, ‘법인중심형’, ‘마을중심형’, ‘시·군형’으로 나누어지나, ‘시·군형’의 비율이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아 ‘시·군형’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사업 유형은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체험판매중심형으로 구분하였음.

## 제 2 장

### 조 사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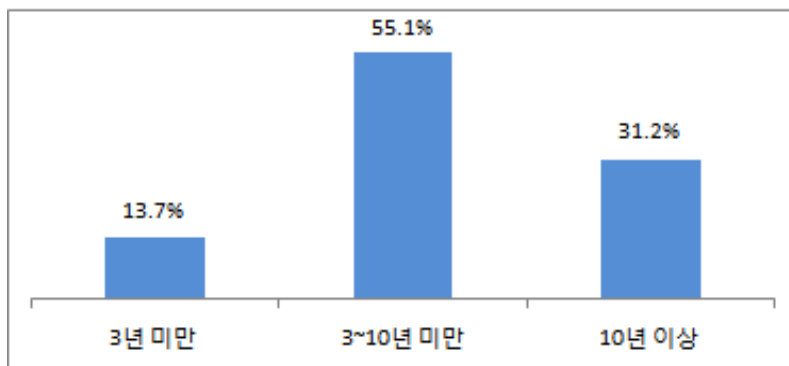
#### 1. 사업체 기본 실태

- 사업 연한, 조직 형태, 조직 유형, 사업내용, 생산 농산물, 사업유형, 매출 현황, 인력 현황, 사업 발전단계, 사업 확장 계획, 애로사항 등을 파악함.

##### 1.1. 사업 연한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사업 연한을 결과, ‘3~10년 미만’이 55.1%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이 31.2%, ‘3년 미만’이 13.7%로 가장 적었음.

그림 2-1. 사업 연한



-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연한을 조사한 결과, 조직유형별로는 마을중심형 일수록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많았음.
  - 마을중심형 업체 중 사업 연한이 ‘10년 이상’인 업체들은 25.0%였지만, 개별농가형의 경우에는 40.4%였음.
- 사업유형별로 보면 생산중심 업체일수록 사업 연한이 ‘3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가 많았고, 체험판매중심 업체의 경우 사업 연한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음.

표 2-1.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연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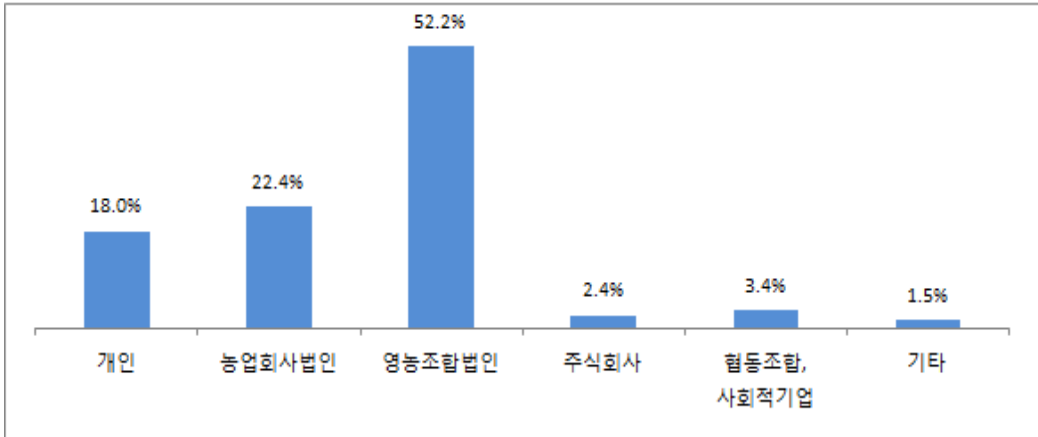
구분		사업 연한			합계
		3년 미만	3~10년 미만	10년 이상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13.5	46.2	40.4	100.0
	법인중심형	13.0	58.5	28.5	100.0
	마을중심형	17.9	57.1	25.0	100.0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23.1	57.7	19.2	100.0
	가공중심형	10.8	60.4	28.8	100.0
	체험판매중심형	14.7	45.6	39.7	100.0

## 1.2. 조직 형태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조직 형태를 조사한 결과 ‘영농조합법인’이 52.2%로 가장 많았고, ‘농업회사법인’이 22.4%, ‘개인’이 18.0%로 주를 이루었고, 이 밖에 ‘협동조합·사회적기업’ 3.4%, ‘주식회사’ 2.4% 등의 형태가 있었음.



그림 2-2. 조직 형태



○ 개별특성에 따른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농업회사법인은 느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줄고 있음.

- 사업 연한은 '10년 이상'인 업체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14.1%, 개인은 29.7%였으나, 사업 연한이 '3년 미만'인 최근 설립된 업체들은 농업회사법인이 42.9%로 크게 늘고, 개인은 7.1%로 비중이 대폭 줄었음.

○ 조직유형별로는 법인중심형의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각각 60.2%, 30.1%로 주를 이루었고, 마을중심형도 영농조합법인이 78.6%로서 대부분을 차지했음.

표 2-2. 개별특성에 따른 조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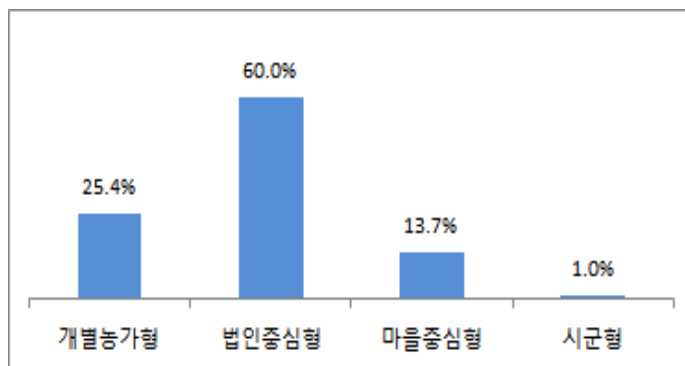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조직 형태						합계
		개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 법인	주식 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기타	
사업연 한	3년 미만	7.1	42.9	39.3	0.0	10.7	0.0	100.0
	3~10년 미만	14.2	22.1	58.4	1.8	1.8	1.8	100.0
	10년 이상	29.7	14.1	46.9	4.7	3.2	1.6	100.0
조직 유 형	개별농가형	63.5	15.4	21.2	0.0	0.0	0.0	100.0
	법인중심형	1.6	30.1	60.2	4.1	3.3	0.8	100.0
	마을중심형	3.6	3.6	78.6	0.0	10.7	3.6	100.0
사업 유 형	생산중심형	23.1	26.9	50.0	0.0	0.0	0.0	100.0
	가공중심형	15.3	24.3	51.4	4.5	3.6	0.9	100.0
	체험판매중심형	20.6	17.6	54.4	0.0	4.4	2.9	100.0

### 1.3. 조직 유형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조직 구성 유형을 조사한 결과, ‘법인중심형’이 60.0%로 가장 많았고, ‘개별농가형’ 25.4%, ‘마을중심형’ 13.7%, ‘시·군형’ 순이었음.

그림 2-3. 조직 유형



- 개별특성에 따른 조직 유형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마을중심형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사업 연한은 ‘10년 이상’인 경우 10.9%가 마을중심형이었으나 ‘3년 미만’의 경우 17.9%로 차츰 증가하고 있음.
- 사업유형별로는 생산중심형의 경우 개별농가형이 46.2%로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가공중심형은 법인중심형이 69.4%로서 주를 이루었음.

표 2-3. 개별특성에 따른 조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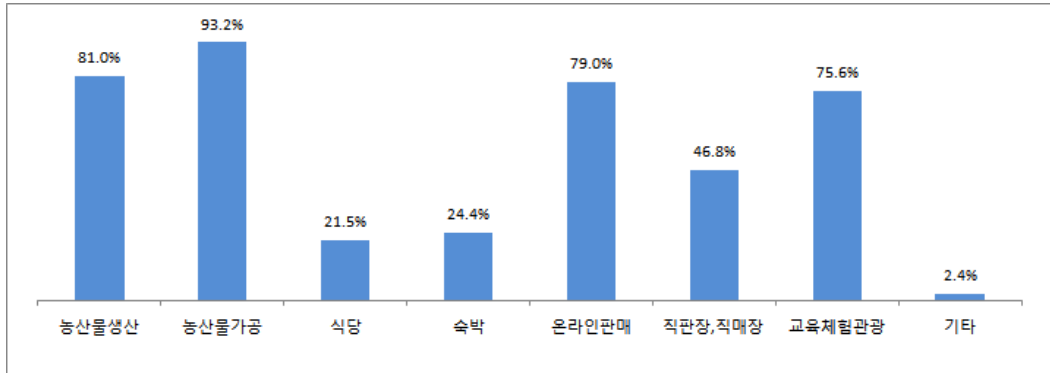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법인중심형	마을중심형	합계
사업 연한	3년 미만	25.0	57.1	17.9	100.0
	3~10년 미만	21.2	63.7	14.2	100.0
	10년 이상	32.8	54.7	10.9	100.0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46.2	42.3	11.5	100.0
	가공중심형	20.7	69.4	9.9	100.0
	체험판매중심형	25.0	51.5	20.6	100.0

#### 1.4.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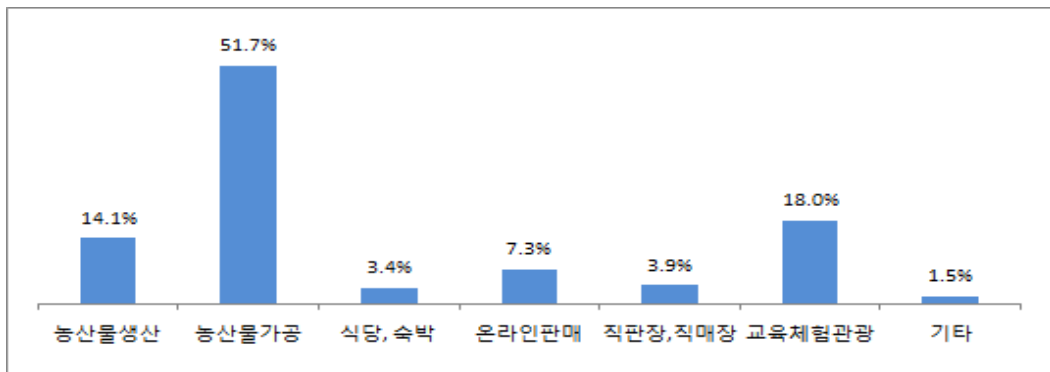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사업내용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농산물가공’이 93.2%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생산’ 81.0%, ‘온라인판매’ 79.0%, ‘교육체험관광’ 75.6%, ‘직판장·직매장’ 46.8%, ‘숙박’ 24.4%, ‘식당’ 21.5% 순이었음

그림 2-4. 사업 내용(복수응답)



○ 사업내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내용을 조사한 결과, ‘농산물가공’이 51.7%로 가장 높았고, ‘교육체험관광’ 18.0%, ‘농산물생산’ 14.1% ‘온라인 판매’ 7.3%, ‘직판장·직매장’ 3.9%, ‘식당·숙박’ 3.4% 순이었음.

그림 2-5. 사업 내용(주사업)



○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내용(주사업)을 조사한 결과, 최근 들어 직판장·직매장의 비중이 늘었으며, 교육체험관광도 소폭 늘었음.

- 직판장·직매장은 사업 연한은 ‘10년 이상’인 경우 1.6%에 불과했으나 ‘3년 미만’인 경우 10.7%까지 확대됨.

- 교육체험관광은 사업 연한은 ‘3~10년 미만’인 경우 16.8%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3년 미만’의 경우에는 21.4%로 소폭 늘어났음.

표 2-4.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내용(주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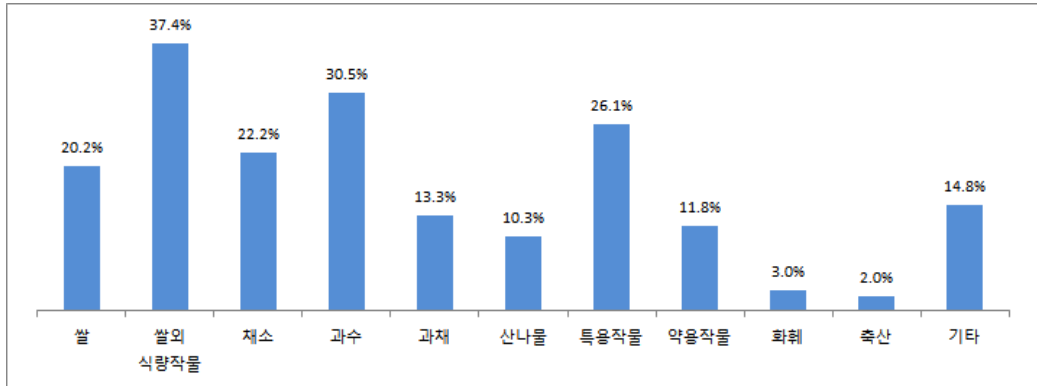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업 내용(주사업)							합계
		농산물 생산	농산물 가공	식당· 숙박	온라인 판매	직판장 직매장	교육체험 관광	기타	
사업 연한	3년 미만	14.3	46.4	7.1	0.0	10.7	21.4	0.0	100.0
	3~10년 미만	13.3	54.0	1.8	8.0	3.5	16.8	2.7	100.0
	10년 이상	15.6	50.0	4.7	9.4	1.6	18.8	0.0	100.0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26.9	40.4	3.8	5.8	3.8	17.3	1.9	100.0
	법인중심형	8.1	60.2	2.4	9.8	4.1	13.8	1.6	100.0
	마을중심형	17.9	39.3	7.1	0.0	3.6	32.1	0.0	100.0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73.1	15.4	0.0	7.7	0.0	0.0	3.8	100.0
	가공중심형	2.7	85.6	0.9	6.3	1.8	0.9	1.8	100.0
	체험판매 중심형	10.3	10.3	8.9	8.8	8.8	52.9	0.0	100.0

## 1.5. 생산 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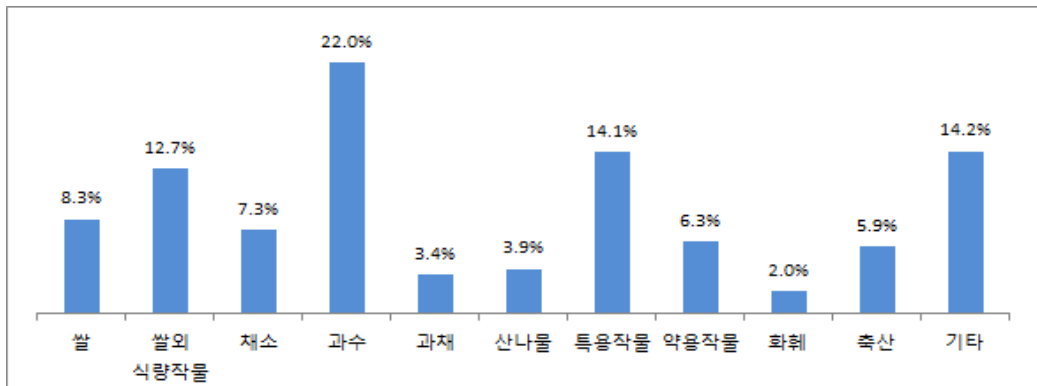
- 6차 산업화 인증업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쌀 외 식량작물’이 37.4%로 가장 많았고, ‘과수’ 30.5%, ‘특용작물’ 26.1%, ‘채소’ 22.2%, ‘쌀’ 20.2%, ‘과채’ 13.3%, ‘약용작물’ 11.8%, ‘산나물’ 10.3%, ‘화훼’ 3.0%, ‘축산’ 2.0% 등이 있었음.

그림 2-6. 생산 농산물



-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생산액 기준)을 조사한 결과는 ‘과수’가 22.0%로 가장 많았고, ‘특용작물’ 14.1%, ‘쌀 외 식량작물’ 12.7%, ‘쌀’ 8.3%, ‘채소’ 7.3%, ‘약용작물’ 6.3%, ‘축산’ 5.9% 순이었음.

그림 2-7. 주농산물(생산액 기준)



- 개별특성에 따른 주농산물(생산액 기준)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 과수 등의 비중이 줄어들고, 축산과 특용작물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쌀과 쌀 외 식량작물의 비중 합계는 사업시작 ‘10년 이상’의 경우 20.3%에 달했으나, ‘3년 미만’은 10.7%에 그치고 있음

- 한편,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시작 ‘10년 이상’의 경우 4.7%였던 것이 최근 ‘3년 미만’에는 10.7%까지 상승하였음.

표 2-5. 개별특성에 따른 주농산물(생산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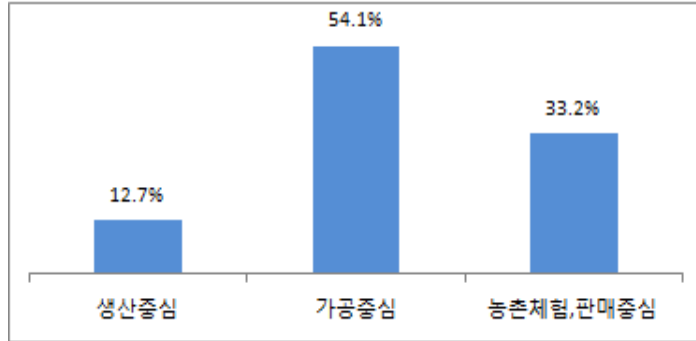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주농산물(생산액 기준)											
		쌀	쌀외 식량 작물	채소	과수	과채	산나 물	특용 작물	약용 작물	화훼	축산	기타	합계
사업연한	3년 미만	7.1	3.6	3.6	14.3	3.6	7.1	17.9	7.1	3.6	10.7	14.3	100.0
	3~10년 미만	10.6	13.3	8.0	23.0	3.5	2.7	13.3	5.3	0.9	5.3	14.2	100.0
	10년 이상	4.7	15.6	7.8	23.4	3.1	4.7	14.1	7.8	3.1	4.7	9.4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1.9	5.8	1.9	28.8	5.8	1.9	23.1	5.8	1.9	17.3	5.8	100.0
	법인중심형	8.1	13.8	10.6	22.0	2.4	4.9	8.9	8.1	1.6	2.4	16.3	100.0
	마을중심형	21.4	14.3	3.6	10.7	3.6	3.6	21.4	0.0	3.6	0.0	10.7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3.8	3.8	19.2	34.6	7.7	3.8	11.5	0.0	0.0	11.5	3.8	100.0
	가공중심형	9.0	14.4	3.6	21.6	1.8	2.7	17.1	10.8	0.9	2.7	15.3	100.0
	체험판매 중심형	8.8	13.2	8.8	17.6	4.4	5.9	10.3	1.5	4.4	8.8	11.8	100.0

## 1.6. 사업 유형

○ 주요 사업내용과 생산 농산물의 매출액 등을 고려한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사업유형을 조사한 결과, ‘가공중심형’이 54.1%로 가장 많았고, ‘농촌체험·판매중심형’이 33.2%, ‘생산중심형’이 12.7%로 나타났음.

그림 2-8. 사업 유형



-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생산중심형의 비중이 다소 상승하는 추세임
  - 사업시작 ‘10년 이상’의 경우 생산중심형의 비중이 7.8%였던 것이 ‘3~10년 미만’의 경우 13.3%, ‘3년 미만’인 최근의 경우에는 21.4%까지 상승하였음.
- 조직 유형별로는 개별농가형은 다른 조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중심형이 많은 편이고, 법인중심형은 가공중심형, 마을중심형은 체험판매중심형이 주를 이뤘음.
  - 법인중심형과 마을중심형의 조직 유형에서는 생산중심형이 10% 내외에 그쳤으나, 개별농가형은 23.1%로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6.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유형

단위: %

구분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체험판매중심형	합계
사업 연한	3년 미만	21.4	42.9	35.7	100.0
	3~10년 미만	13.3	59.3	27.4	100.0
	10년 이상	7.8	50.0	42.2	100.0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23.1	44.2	32.7	100.0
	법인중심형	8.9	62.6	28.5	100.0
	마을중심형	10.7	39.3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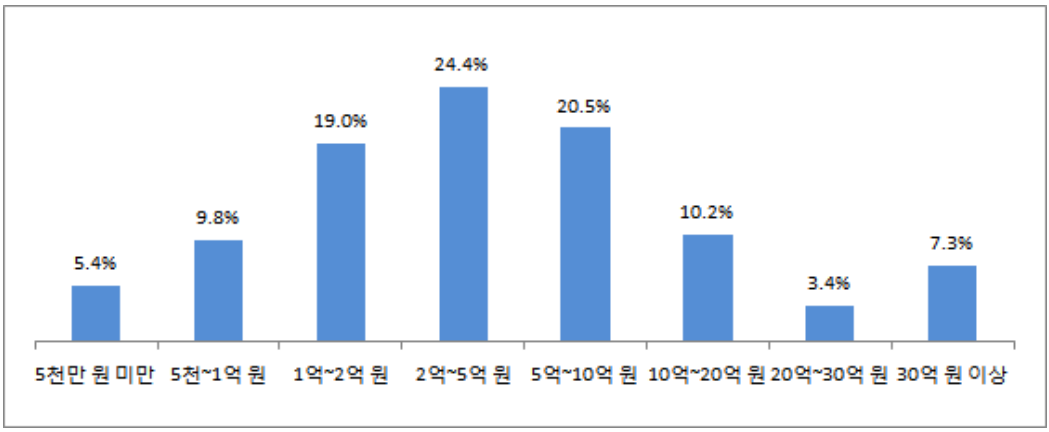


### 1.7. 매출 현황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2억~5억 원 미만’이 24.4%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 원 미만’이 20.5%, ‘1억~2억 원 미만’이 19.0% 순으로 많았음.

-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의 영세 업체도 5.4%로 적지 않았지만 ‘30억 원 이상’의 일정 규모를 갖춘 업체도 7.3%로 적지 않았음.

그림 2-9. 매출액



○ 개별특성에 따른 매출 현황 분석에서는, 최근 설립된 업체일수록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고, 반대로 사업시작 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큰 업체의 비중이 높았음.

- 사업시작 ‘3년 미만’ 업체 중 21.5%가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이었던 반면, 사업시작 ‘10년 이상’ 업체들 중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비중이 32.8%에 달했음.

○ 개별농가형과 마을중심형의 경우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법인중심형은 매출액이 큰 업체의 비중이 높았음.

- 개별농가형과 마을중심형 중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인 비중은 각각 9.6%, 10.7%였으나, 법인중심형의 경우는 2.4%에 불과했고, 반면 같은 부문의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비중은 10.9%에 달했음.

○ 가공중심형일수록 매출액이 큰 비중이 높고, 생산중심형의 경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았음.

표 2-7. 개별특성에 따른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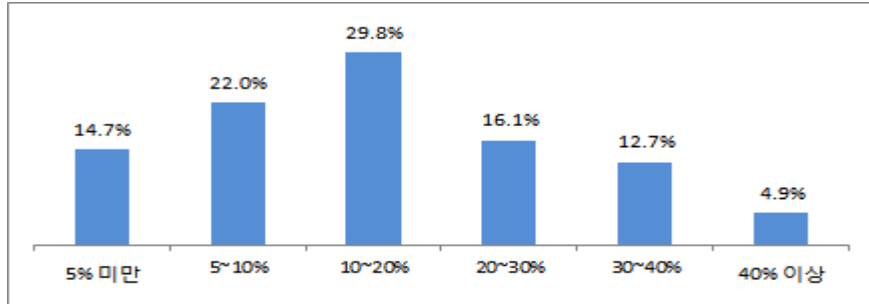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출액								합계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10억 원	10억~20억 원	20억~30억 원	30억 원 이상	
사업연한	3년 미만	21.5	7.1	17.9	21.4	14.3	3.6	7.1	7.1	100.0
	3~10년 미만	4.4	10.6	21.2	28.3	20.4	9.7	0.0	5.3	100.0
	10년 이상	0.0	9.4	15.6	18.8	23.4	14.1	7.8	10.9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9.6	17.3	21.2	23.1	23.1	3.8	1.9	0.0	100.0
	법인중심형	2.4	3.3	19.5	25.2	18.7	13.8	4.9	12.2	100.0
	마을중심형	10.7	21.4	14.3	21.4	25.0	7.1	0.0	0.0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7.7	3.8	23.1	26.9	11.5	11.5	11.5	3.8	100.0
	가공중심형	4.5	4.5	18.9	26.1	21.6	12.6	1.8	9.9	100.0
	체험판매중심형	5.9	20.6	17.6	20.6	22.1	5.9	2.9	4.4	100.0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10~20% 미만'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5~10% 미만'이 22.0%, '20~30% 미만'이 16.1%로 뒤를 이었음.

○ 개별특성에 따라서는 최근 설립된 업체일수록 영업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고, 사업시작 '3~10년 미만'과 '10년 이상'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었음.

그림 2-10.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 개별농가형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반대로 마을중심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업체들이 많았음.
- 체험판매중심형일수록 높은 영업이익률의 업체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가공중심형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음.

표 2-8. 개별특성에 따른 영업이익률

단위: %

구분	매출액						합계	
	5% 미만	5~10%	10~20%	20~30%	30~40%	40%이상		
사업연한	3년 미만	32.1	17.9	28.6	14.3	7.1	0.0	100.0
	3~10년 미만	12.4	20.4	32.7	15.9	13.3	5.3	100.0
	10년 이상	10.9	26.6	25.0	17.2	14.1	6.3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7.7	9.6	23.1	26.9	21.2	11.5	100.0
	법인중심형	15.4	26.0	33.3	11.4	11.4	2.4	100.0
	마을중심형	25.0	28.6	25.0	17.9	3.6	0.0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11.5	11.5	30.8	26.9	11.5	7.7	100.0
	가공중심형	15.3	29.7	35.1	11.7	6.3	1.8	100.0
	체험판매중심형	14.7	13.2	20.6	19.1	23.5	8.8	100.0

## 1.8. 인력 현황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인력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 노동인력은 본인 이외 1.6명, 급료를 주는 상근 고용자가 5.7명, 연간 고용하는 임시 고용자가 5.4명으로서 총인력은 12.6명이었음.<sup>3</sup>

- 가족 노동인력(본인 이외)의 경우 '1명'이 37.1%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 이외 '없음'도 25.9%로 상당수를 차지했음
- 상근 고용자의 경우 '1~2명'이 26.8%, '6~10명'이 25.4%, '3~5명'이 23.9%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음.
- 임시 고용자의 연평균 고용 일자수는 95일이었음.

그림 2-11. 가족 노동인력(본인 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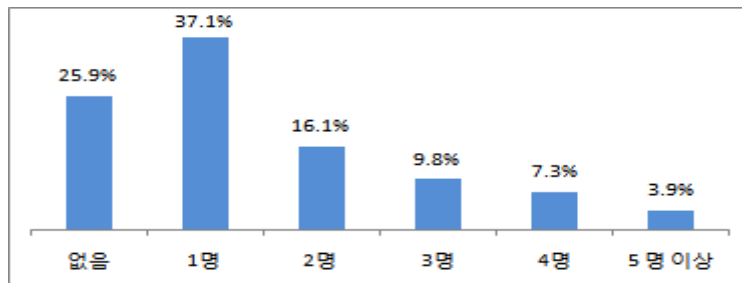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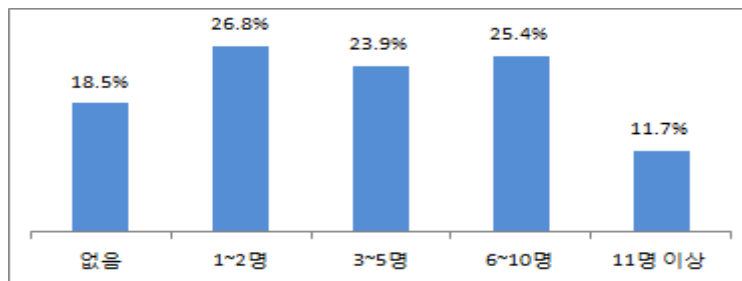


그림 2-12. 상근 고용자(급료 지급)



<sup>3</sup>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사업주를 포함할 경우 총인력은 13.6명임.

- 개별특성에 따른 가족 노동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조직유형별로는 개별농가형이 가족 노동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는 경우가 96.2%로 대부분이었지만, 법인중심형과 마을중심형은 가족 노동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30.9%와 46.4%로 높았음.
- 생산중심형은 가족 노동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88.5%로 대부분이었지만, 가공중심형과 체험판매중심형은 가족 노동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비중도 적지 않았고, 활용하더라도 1명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였음.

표 2-9. 개별특성에 따른 가족 노동인력(본인 이외)

단위: %

구분		가족 노동인력(본인 이외)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합계
사업연한	3년 미만	39.3	32.1	17.9	7.1	3.6	0.0	100.0
	3~10년 미만	23.9	37.2	20.4	6.2	7.1	5.3	100.0
	10년 이상	23.4	39.1	7.8	17.2	9.4	3.1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3.8	42.3	23.1	25.0	3.8	1.9	100.0
	법인중심형	30.9	37.4	14.6	4.9	7.3	4.9	100.0
	마을중심형	46.4	28.6	10.7	0.0	10.7	3.6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11.5	38.5	34.6	7.7	3.8	3.8	100.0
	가공중심형	30.6	42.3	11.7	7.2	5.4	2.7	100.0
	체험판매중심형	23.5	27.9	16.2	14.7	11.8	5.9	100.0

- 개별특성에 따른 가족 상근 고용자(급료 지급)의 현황을 살펴보면, 조직유형별로 개별농가형의 경우 절반 가까운 업체가 상근 고용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마을중심형은 1~2명을 고용하는 경우가 42.9%였고, 법인중심형은 3명 이상 고용하는 비중이 69.1%로서 상근 고용자의 고용규모가 컸음.
- 사업 유형별로는 체험판매중심형의 경우 상근 고용자를 3명 이상 고용하는

비중이 64.9%로 고용규모가 컸던 반면, 생산중심형은 1~2명을 고용하는 것에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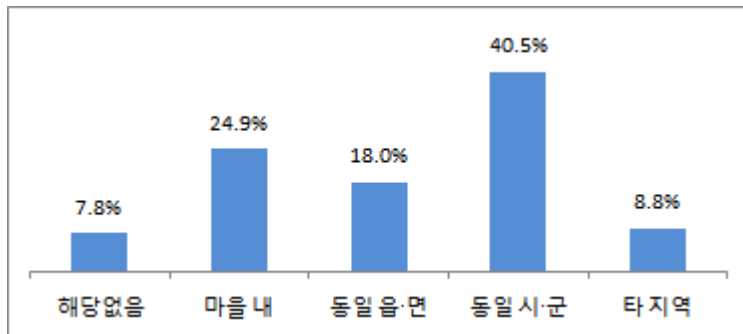
표 2-10. 개별특성에 따른 상근 고용자(급료 지급)

단위: %

구분		상근 고용자(급료 지급)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합계
사업연한	3년 미만	21.4	25.0	28.6	7.1	17.9	100.0
	3~10년 미만	18.6	27.4	23.9	20.4	9.7	100.0
	10년 이상	17.2	26.6	21.9	21.9	12.5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44.2	28.8	17.3	7.7	1.9	100.0
	법인중심형	9.8	21.1	25.2	26.8	17.1	100.0
	마을중심형	10.7	42.9	32.1	7.1	7.1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0.0	100.0	0.0	0.0	0.0	100.0
	가공중심형	34.6	26.9	19.2	15.4	3.8	100.0
	체험판매중심형	12.6	22.5	23.4	27.0	14.4	100.0

○ 상근 고용자를 주로 확보하는 지역은 ‘동일 시·군’이 40.5%로 가장 많았고, ‘마을 내’가 24.9%, ‘동일 읍·면’이 18.0%였으며, ‘타 지역’인 경우는 8.8%에 그쳤음.

그림 2-13. 상근 고용자 확보 지역



- 개별특성에 따른 상근 고용자 확보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을중심형은 ‘마을 내’ 또는 ‘동일 읍·면’에서 상근 고용자를 확보하는 비중이 75.0%로 매우 높았던 반면, 법인중심형은 ‘동일 시·군’ 또는 ‘타 지역’에서 확보하는 비중이 60.1%여서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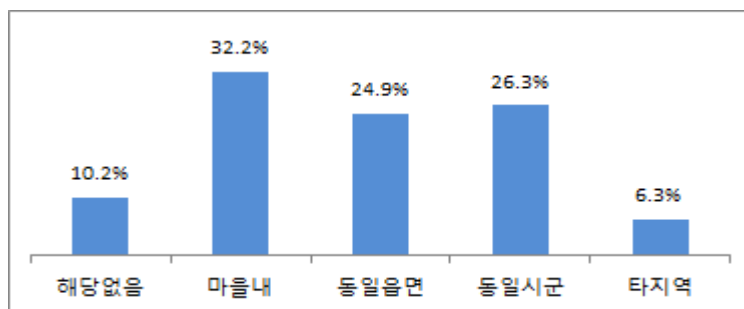
표 2-11. 개별특성에 따른 상근 고용자 확보 지역

단위: %

구분		상근 고용자 확보 지역					
		해당없음	마을 내	동일 읍·면	동일 시·군	타 지역	합계
사업연한	3년 미만	7.1	17.9	21.4	46.4	7.1	100.0
	3~10년 미만	8.8	23.9	17.7	39.8	9.7	100.0
	10년 이상	6.3	29.7	17.2	39.1	7.8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19.2	25.0	17.3	25.0	13.5	100.0
	법인중심형	4.1	17.1	18.7	51.2	8.9	100.0
	마을중심형	3.6	57.1	17.9	21.4	0.0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7.7	26.9	15.4	34.6	15.4	100.0
	가공중심형	5.4	18.9	21.6	45.0	9.0	100.0
	체험판매중심형	11.8	33.8	13.2	35.3	5.9	100.0

- 임시 고용자를 주로 확보하는 지역은 ‘마을 내’가 32.2%로 가장 많았고, ‘동일 시·군’이 26.3%, ‘동일 읍·면’이 24.9%였으며, ‘타 지역’인 경우는 6.3%로서 전반적으로 상근 고용자와 유사했으나, 인접 지역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그림 2-14. 임시 고용자 확보 지역



- 개별특성에 따른 임시 고용자 확보 지역을 보면, 마을중심형은 ‘마을 내’에서 임시 고용자를 확보하는 비중이 82.1%로 대부분을 마을 내에서 고용하고 있음.
- 체험판매중심형 역시 ‘마을 내’에서 임시 고용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44.1%로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했음.

표 2-12. 개별특성에 따른 임시 고용자 확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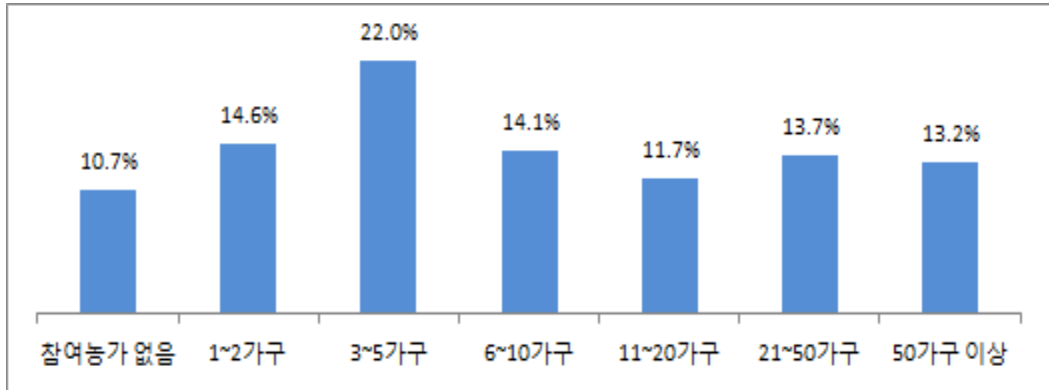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임시 고용자 확보 지역					
		해당없음	마을 내	동일 읍면	동일 시·군	타 지역	합계
사업연한	3년 미만	14.3	25.0	17.9	35.7	7.1	100.0
	3~10년 미만	12.4	33.6	28.3	20.4	5.3	100.0
	10년 이상	4.7	32.8	21.9	32.8	7.8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7.7	26.9	28.8	30.8	5.8	100.0
	법인중심형	13.8	22.8	27.6	27.6	8.1	100.0
	마을중심형	0.0	82.1	7.1	10.7	0.0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3.8	30.8	26.9	30.8	7.7	100.0
	가공중심형	11.7	25.2	29.7	26.1	7.2	100.0
	체험판매중심형	10.3	44.1	16.2	25.0	4.4	100.0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에 참여하는 농가 수를 조사한 결과, ‘3~5가구’가 22.0%로 가장 많았고, ‘1~2가구’와 ‘6~10가구’가 각각 14.6%와 14.1%로 비슷한 비중이었고, ‘5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도 13.2%로 나타났음.



그림 2-15. 참여 농가 수



○ 마을중심형은 ‘21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율이 57.2%에 달했으며, 개별농가형은 ‘2가구 이하’가 참여하는 비율이 42.3%로서 참여 규모가 작았음.

표 2-13. 개별특성에 따른 참여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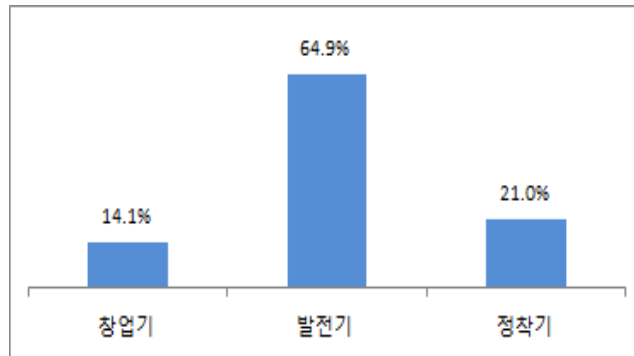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 농가 수							합계
		참여 농가없음	1~2 가구	3~5 가구	6~10 가구	11~20 가구	21~50 가구	50가구 이상	
사업연한	3년 미만	14.3	7.1	25.0	14.3	7.1	14.3	17.9	100.0
	3~10년 미만	8.0	15.9	23.0	14.2	12.4	12.4	14.2	100.0
	10년 이상	14.1	15.6	18.8	14.1	12.5	15.6	9.4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17.3	25.0	19.2	13.5	9.6	11.5	3.8	100.0
	법인중심형	8.1	13.8	26.8	15.4	11.4	11.4	13.0	100.0
	마을중심형	7.1	0.0	7.1	10.7	17.9	28.6	28.6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11.5	15.4	19.2	7.7	15.4	23.1	7.7	100.0
	가공중심형	9.9	13.5	23.4	17.1	10.8	12.6	12.6	100.0
	체험판매중심형	11.8	16.2	20.6	11.8	11.8	11.8	16.2	100.0

## 1.9. 사업 발전단계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사업 발전단계를 조사한 결과, ‘발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고, ‘정착기’ 21.0%, ‘창업기’가 14.1%로서 전반적으로 창업 이후 발전단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16. 사업 발전단계



-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설립된 지 오래된 업체일수록 ‘정착기’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사업시작 ‘3년 미만’의 업체들 중 ‘정착기’라고 답한 비중은 3.6%에 그쳤음.
- 조직 유형별로는 법인중심형은 ‘발전기’라고 답한 비중이 71.5%로서 다른 조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업 유형별로는 생산중심형의 경우 ‘창업기’로 응답한 비율(26.9%)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체험판매중심형의 경우에는 ‘정착기’로 답한 비율(30.9%)이 타 유형에 비해 다소 높았음.

표 2-14.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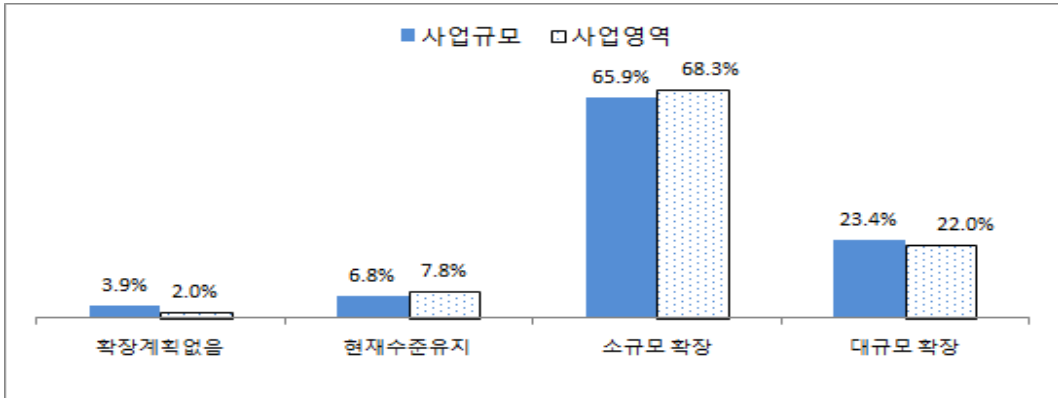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업 발전단계			
		창업기	발전기	정착기	합계
사업 연한	3년 미만	53.6	42.9	3.6	100.0
	3~10년 미만	8.0	74.3	17.7	100.0
	10년 이상	7.8	57.8	34.4	100.0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21.2	57.7	21.2	100.0
	법인중심형	8.1	71.5	20.3	100.0
	마을중심형	28.6	46.4	25.0	100.0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26.9	50.0	23.1	100.0
	가공중심형	10.8	74.8	14.4	100.0
	체험판매중심형	14.7	54.4	30.9	100.0

### 1.10. 사업 확장 계획

-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업규모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응답(‘소규모 확장’과 ‘대규모 확장’ 포함)이 각각 전체의 89.3%와 90.3%로써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규모) ‘소규모 확장’이 65.9%, ‘대규모 확장’이 23.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재수준 유지’는 6.8%, ‘확장계획 없음’은 3.9%로 소수를 차지함.
  - (사업영역) ‘소규모 확장’이 68.3%, ‘대규모 확장’이 22.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재수준 유지’는 7.8%, ‘확장계획 없음’은 2.0%에 불과했음.

그림 2-17. 사업 확장 계획



○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영역 확장 계획을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마을중심형의 경우 타 조직 유형에 비해 ‘대규모 확장’ 계획 비중이 낮게 나타남.

- 마을중심형의 ‘대규모 확장’ 계획 비율은 사업규모·영역에서 동일하게 7.1%인데 반해, 법인중심형과 개별농가형은 사업규모·영역 모두에서 20% 중후반대 비율의 업체들에 ‘대규모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5.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규모 확장 계획

단위: %

구분		사업규모 확장 계획				
		확장계획 없음	현재수준 유지	소규모 확장	대규모 확장	합계
사업 연한	3년 미만	3.6	10.7	67.9	17.9	100.0
	3~10년 미만	3.5	5.3	64.6	26.5	100.0
	10년 이상	4.7	7.8	67.2	20.3	100.0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1.9	3.8	63.5	30.8	100.0
	법인중심형	4.1	4.9	66.7	24.4	100.0
	마을중심형	7.1	17.9	67.9	7.1	100.0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7.7	3.8	57.7	30.8	100.0
	가공중심형	3.6	6.3	72.1	18.0	100.0
	체험판매중심형	2.9	8.8	58.8	29.4	100.0

표 2-16.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영역 확장 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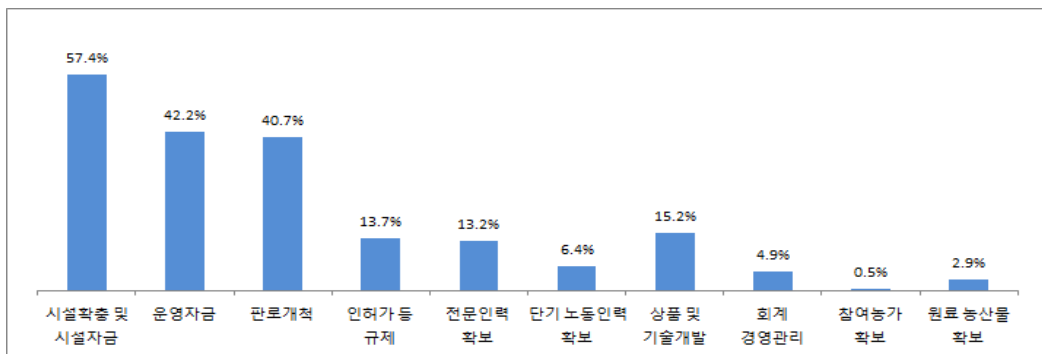
구분		사업영역 확장 계획				
		확장계획 없음	현재수준 유지	소규모 확장	대규모 확장	합계
사업 연한	3년 미만	3.6	7.1	67.9	21.4	100.0
	3~10년 미만	1.8	5.3	70.8	22.1	100.0
	10년 이상	1.6	12.5	64.1	21.9	100.0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0.0	5.8	73.1	21.2	100.0
	법인중심형	1.6	6.5	65.9	26.0	100.0
	마을중심형	7.1	14.3	71.4	7.1	100.0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3.8	3.8	61.5	30.8	100.0
	가공중심형	1.8	8.1	73.9	16.2	100.0
	체험판매중심형	1.5	8.8	61.8	27.9	100.0

### 1.11. 애로사항

○ 6차 산업화 인증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복수응답), ‘시설자금’이 57.4%, ‘운영자금’이 42.2%, ‘판로개척’이 4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그 외에도 ‘상품 및 기술개발’이 15.2%, ‘인허가 등 규제’가 13.7%, ‘전문인력 확보’가 13.2%, ‘단기 노동인력 확보’가 6.4%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18. 애로사항(복수응답)



- 개별특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시작 초기에 ‘원료 농산물 확보’와 ‘상품 및 기술개발’과 같은 부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다 차츰 ‘시설확충 및 시설자금’이나 ‘전문·단기노동 인력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
- 조직 유형에 따라서는 개별농가형이 ‘시설확충 및 시설자금’(75.0%), 법인중심형이 ‘운영자금’(48.4%), 마을중심형이 ‘판로개척’(50.0%)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
- 사업 유형별로는 가공중심형이 ‘운영자금’(53.2%), 체험판매중심형이 ‘인허가 등 규제’(25.4%)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았음.

표 2-17. 개별특성에 따른 사업애로(복수응답)

단위: %

구분		사업애로									
		시설확충 및 시설자금	운영자금	판로개척	인허가 등 규제	전문인력 확보	단기노동인력 확보	상품 및 기술개발	회계경영관리	참여농가 확보	원료농산물 확보
사업연한	3년 미만	42.9	46.4	39.3	14.3	10.7	0.0	21.4	7.1	0.0	10.7
	3~10년 미만	61.9	45.1	43.4	11.5	12.4	3.5	16.8	4.4	0.0	0.9
	10년 이상	55.6	34.9	36.5	17.5	15.9	14.3	9.5	4.8	1.6	3.2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75.0	32.7	28.8	9.6	9.6	13.5	17.3	7.7	0.0	1.9
	법인중심형	52.5	48.4	43.4	16.4	14.8	4.1	13.9	1.6	0.8	4.1
	마을중심형	46.4	35.7	50.0	10.7	7.1	3.6	17.9	14.3	0.0	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65.4	38.5	34.6	7.7	19.2	11.5	15.4	3.8	0.0	0.0
	가공중심형	53.2	53.2	46.8	8.1	10.8	3.6	14.4	5.4	0.9	3.6
	체험판매중심형	61.2	25.4	32.8	25.4	14.9	9.0	16.4	4.5	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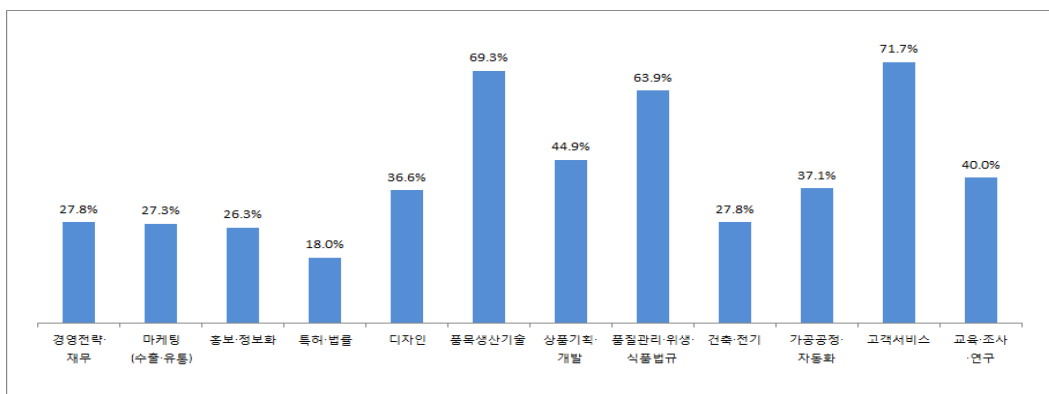
## 2. 사업 전문성 및 개발요구

- 영역별 전문성, 필요로 하는 전문성,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 인식, 전문인력 현황, 전문인력 보수 수준, 전문인력 채용 경로,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 방안 등을 조사하였음.

### 2.1. 영역별 전문성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사업 관련 영역별 전문성을 조사한 결과, ‘고객서비스’(71.7%), ‘품목생산기술’(69.3%), ‘품질관리·위생·식품법규’(63.9%) 영역에서는 전문성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특허·법률’(18.0%), ‘홍보·정보화’(26.3%), ‘마케팅(27.3%)’ 등에서는 전문성이 높다는 응답이 매우 적었음.
  - 즉, 6차 산업화 인증업체는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등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홍보·정보화’, ‘마케팅’, ‘경영전략·재무’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단, 제품 생산 관련 영역 중 ‘가공공정·자동화’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음.

그림 2-19. 영역별 전문성



주: 각 항목의 전문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질의. 이 중 전문성이 높다(4점과 5점으로 응답)고 응답한 비율.

- 개별특성에 따른 영역별 전문성을 조사한 결과, 최근 설립된 업체일수록 ‘경영·재무’, ‘마케팅’, ‘특허·법률’, ‘디자인’ 등에서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직 유형별로는 개별농가형이 ‘가공공정·자동화’, 마을중심형이 ‘상품기획·개발’, ‘건축·전기’, ‘교육·조사·연구’ 등의 영역에서 법인중심형·마을중심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게 나타남.
- 사업 유형별로 보면 생산중심형이 ‘디자인’, ‘품질관리·위생·식품법규’, ‘가공공정·자동화’ 영역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체험판매중심형은 ‘특허·법률’ 영역에서 타 유형에 비해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18. 개별특성에 따른 영역별 전문성(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영역별 전문성											
		경영재무	마케팅(수출유통)	홍보, 정보화	특허법률	디자인	품목생산기술	상품기획개발	품질관리, 위생, 식품법규	건축전기	가공공정, 자동화	고객서비스	교육조사연구
사업연한	3년 미만	21.4	25.0	25.0	7.1	25.0	71.4	50.0	57.1	25.0	42.9	60.7	32.1
	3~10년 미만	27.4	25.7	26.5	19.5	39.8	68.1	43.4	67.3	30.1	37.2	77.0	44.2
	10년 이상	31.3	31.3	26.6	20.3	35.9	70.3	45.3	60.9	25.0	34.4	67.2	35.9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28.8	25.0	26.9	15.4	46.2	67.3	51.9	63.5	40.4	23.1	76.9	57.7
	법인중심형	29.3	29.3	26.0	20.3	33.3	73.2	43.9	63.4	24.4	43.9	70.7	35.8
	마을중심형	17.9	21.4	25.0	14.3	35.7	57.1	35.7	67.9	21.4	32.1	67.9	28.6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23.1	30.8	23.1	15.4	26.9	69.2	46.2	30.8	15.4	15.4	69.2	34.6
	가공중심형	22.5	23.4	22.5	23.4	41.4	69.4	41.4	71.2	27.0	48.6	68.5	34.2
	체험판매중심형	38.2	32.4	33.8	10.3	32.4	69.1	50.0	64.7	33.8	26.5	77.9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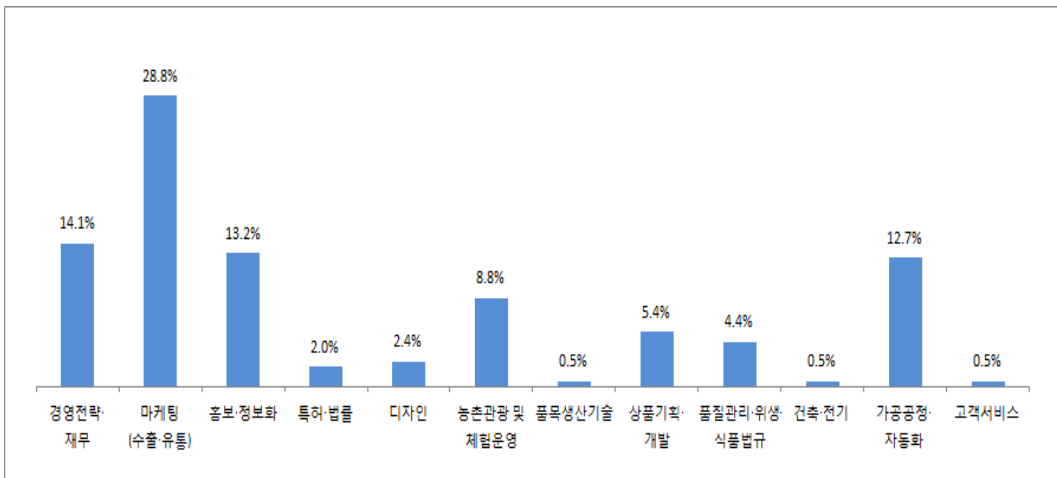
주: 각 항목의 전문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질의하여 전문성이 높다(4점과 5점으로 응답)고 응답한 비율임.



## 2.2. 필요로 하는 전문성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사업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조사한 결과, ‘마케팅’ 영역이 28.8%로 가장 높았고, ‘경영전략·재무’가 14.1%, ‘홍보·정보화’가 13.2%, ‘가공공정·자동화’가 12.7% 순이었음.
- 즉, 6차 산업화 인증업체는 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영역(마케팅, 경영재무, 홍보) 및 제품 생산 분야 중 ‘가공공정·자동화’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농촌관광 및 체험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로 나타났음.

그림 2-20. 필요로 하는 전문성



- 개별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문성을 조사한 결과, 최근 설립된 업체일수록 ‘경영전략·재무’, ‘특허·법률’ 등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해당 영역의 전문성이 낮게 나타났던 것(<표2-18> 참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직 유형별로는 개별농가형이 ‘가공공정·자동화’, ‘홍보·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마을중심형은 ‘경영전략·재무’, ‘농촌관광 및 체험운영’, ‘상품기획·개발’ 등에서 타 유형에 비해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사업 유형으로는 생산중심형이 ‘홍보·정보화’, ‘가공공정·자동화’, 가공중심형이 ‘마케팅’, 체험판매중심형이 ‘농촌관광 및 체험운영’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19. 개별특성에 따른 필요 전문성

단위: %

구분		필요 전문성													합계
		경영 전략 재무	마케팅 (수출 유통)	홍보, 정보 화	특허 법률	디 자 인	농촌 관광 및 체험 운영	품목 생산 기술	상품 기획 개발	품질 관리, 위생, 식품 법규	건축 전기	가공 공정, 자동 화	고객 서비 스	교육 조사 연구	
사 업 연 한	3년 미만	14.3	28.6	10.7	7.1	0.0	7.1	0.0	3.6	7.1	3.6	14.3	0.0	0.0	100.0
	3~10년 미만	16.8	30.1	13.3	1.8	1.8	8.8	0.9	4.4	3.5	0.0	10.6	0.9	1.8	100.0
	10년 이상	9.4	26.6	14.1	0.0	4.7	9.4	0.0	7.8	4.7	0.0	15.6	0.0	1.6	100.0
조 직 유 형	개별농가형	9.6	28.8	17.3	1.9	1.9	9.6	0.0	5.8	1.9	0.0	17.3	1.9	0.0	100.0
	법인중심형	13.8	30.9	13.8	1.6	3.3	7.3	0.8	2.4	5.7	0.8	13.0	0.0	2.4	100.0
	마을중심형	21.4	21.4	3.6	3.6	0.0	14.3	0.0	17.9	3.6	0.0	0.0	0.0	0.0	100.0
사 업 유 형	생산중심형	15.4	11.5	23.1	3.8	0.0	7.7	0.0	7.7	0.0	0.0	23.1	0.0	3.8	100.0
	가공중심형	16.2	40.5	8.1	1.8	1.8	4.5	0.9	5.4	7.2	0.0	10.8	0.0	0.9	100.0
	체험판매 중심형	10.3	16.2	17.6	1.5	4.4	16.2	0.0	4.4	1.5	1.5	11.8	1.5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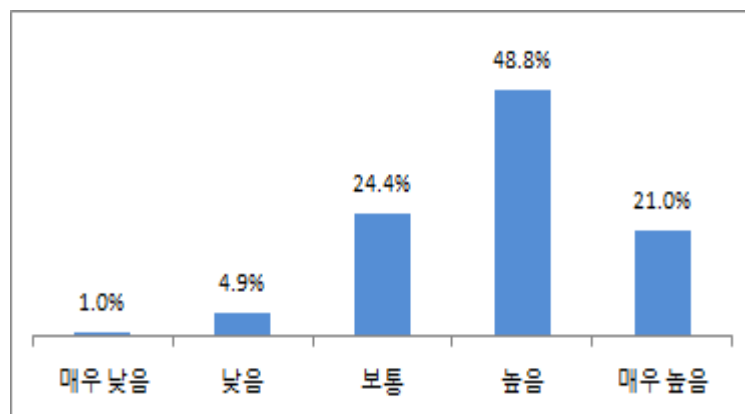
주: 개별특성별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타 의견으로 인한 것임.

- 부족한 전문성의 보완을 위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시·군·도청’(39.0%) 및 ‘농업 관련 공공기관’(39.0%)이었고, 2순위는 ‘농업 관련 공공기관’(24.9%)과 ‘6차 산업 중간지원조직’(20.5%)이며, 3순위는 ‘6차 산업 중간지원조직’(21.0%)과 ‘농업 컨설팅 업체’(12.7%)로 나타났음.<sup>4</sup>

### 2.3.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 인식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9.8%('높음' 48.8%, '매우 높음' 21.0%)에 달하는 사업체가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2-21.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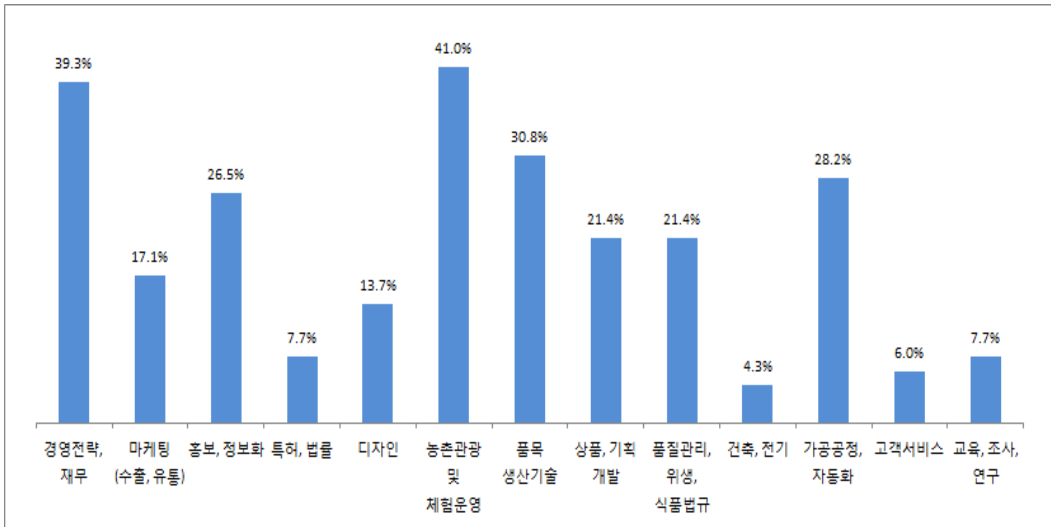


4 각 응답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응답한 조직·기관 중 상위 2개만을 나타낸 것임.

## 2.4. 전문인력 현황

- 6차 산업화 인증업체 중 실제로 전문인력(실무인력)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57.1% 수준이었음.
- 전문인력(실무인력)이 있는 경우 그 전문분야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허용), ‘농촌관광 및 체험운영(41.0%)’과 ‘경영전략·재무(39.3%)’가 주를 이루었고, ‘품목 생산기술(30.8%)’, ‘가공공정·자동화(28.2%)’, ‘홍보·정보화(26.5%)’ 등이 그 뒤를 이었음.

그림 2-22. 전문인력 현황(복수응답)



- 개별특성별로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연한이 오래된 업체일수록 ‘디자인’, ‘고객서비스’, ‘교육·조사·연구’ 분야의 전문인력을 둔 경우가 많았음.

- 조직 유형별로 보면, 법인중심형은 ‘품질관리·위생·식품법규’ 분야 전문인력을 둔 경우가 타 유형에 비해 많았으며, 마을중심형은 ‘고객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음.
- 사업 유형별로는 가공중심형이 ‘품질관리·위생·식품법규’ 분야와 ‘가공공정·자동화’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둔 경우가 많았으며, 체험판매중심형의 경우, ‘농촌관광 및 체험운영’과 ‘홍보·정보화’에 많은 인력이 있었음.

표 2-20.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문인력 현황													
	경영 전략 제무	마케팅 (수출 유통)	홍보, 정보 화	특 허 법 률	디 자 인	농촌 관광 및 체험 운영	품목 생산 기술	상품 기획 개발	품질 관리, 위생, 식품 법규	건 축 전 기	가공 공정, 자동 화	고 객 서 비 스	교육 조사 연구	
사업 연 한	3년 미만	37.5	25.0	18.8	0.0	0.0	25.0	56.3	18.8	18.8	0.0	25.0	0.0	6.3
	3~10년 미만	40.3	10.4	26.9	9.0	14.9	35.8	29.9	26.9	22.4	7.5	29.9	4.5	4.5
	10년 이상	38.2	26.5	29.4	8.8	17.6	58.8	20.6	11.8	20.6	0.0	26.5	11.8	14.7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33.3	20.8	33.3	8.3	8.3	45.8	20.8	12.5	0.0	12.5	20.8	0.0	16.7
	법인중심형	40.5	18.9	25.7	6.8	16.2	36.5	36.5	24.3	32.4	1.4	32.4	5.4	2.7
	마을중심형	35.3	5.9	17.6	11.8	11.8	58.8	23.5	23.5	5.9	5.9	23.5	17.6	11.8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55.6	22.2	22.2	11.1	11.1	33.3	33.3	22.2	0.0	11.1	0.0	11.1	0.0
	가공중심형	35.3	22.1	19.1	10.3	16.2	26.5	32.4	30.9	30.9	2.9	41.2	4.4	4.4
	체험판매 중심형	42.5	7.5	40.0	2.5	10.0	67.5	27.5	5.0	10.0	5.0	12.5	7.5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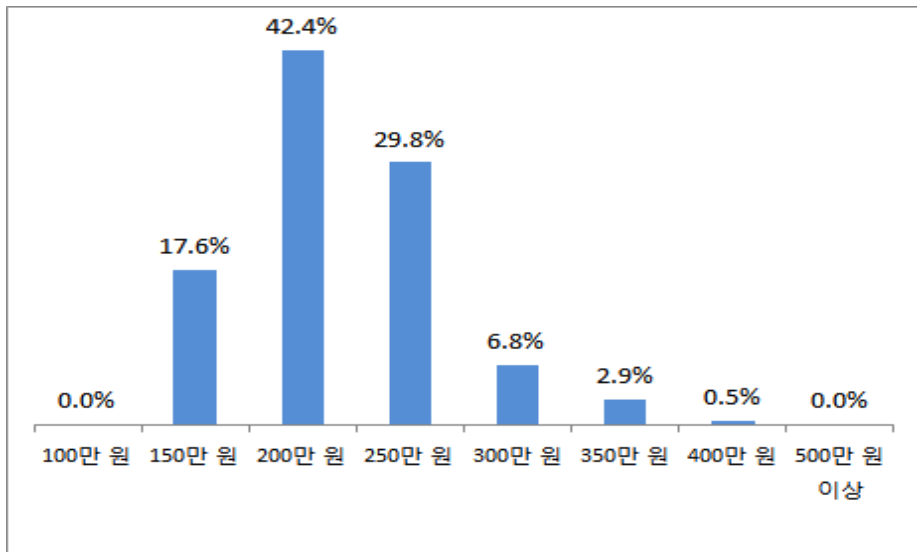
- 한편,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향후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7.3%가 향후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문인력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현재 채용계획이 없는 사업체 중에도 전문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시행될 경우 채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93.2%에 달했음.

## 2.5. 전문인력 보수 수준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 평균은 월 218만 원이었으나, 실제 전문인력에게 지급되는 월 보수는 165만 원으로서 적정 수준의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 조사결과, ‘200만 원’이 42.4%로 가장 많았고, ‘250만 원’이 29.8%, ‘150만 원’이 17.6%로 그 뒤를 이었음.

그림 2-23. 전문인력 적정 보수 수준



-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조사한 결과, 최근 설립된 업체의 경우 적정 보수 수준이 ‘250만 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39.3%로 높은 반면, 3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서는 ‘200만 원’을 적정 보수라고 답한 비율이 43% 이상이었음.
- 조직 유형별로는 마을중심형이 적정 보수 수준을 ‘200만 원’이라고 답한 비

율이 53.6%로 개별농가형·법인중심형이 40% 정도인 것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사업 유형별로는 가공중심형이 적정 보수 수준을 ‘250만 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37.8%로 생산중심형·체험판매중심형이 19~20% 정도인 것과 비교해서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표 2-21.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인력 적정 보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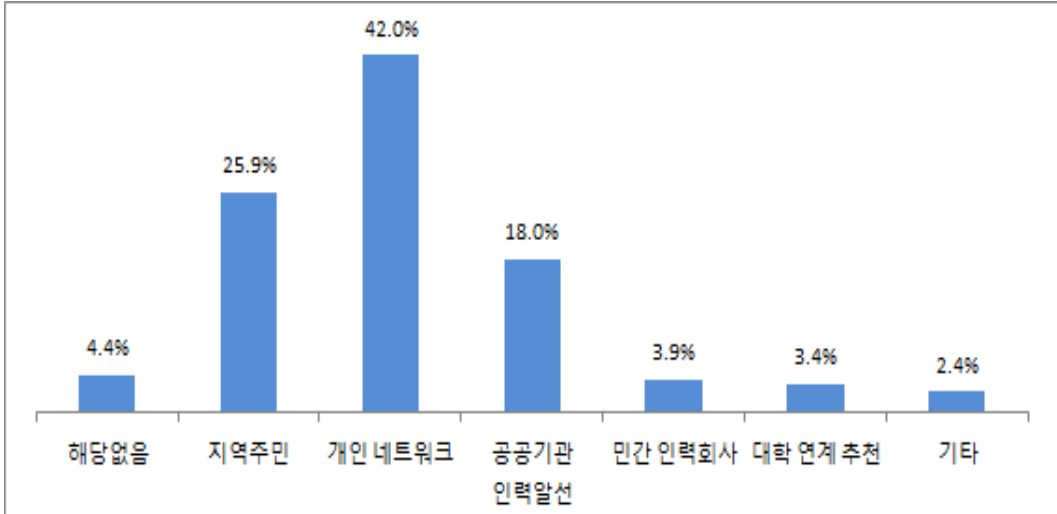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문인력 적정 보수 수준						합계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사업연한	3년 미만	17.9	35.7	39.3	3.6	3.6	0.0	100.0
	3~10년 미만	16.8	43.4	28.3	8.0	2.7	0.9	100.0
	10년 이상	18.8	43.8	28.1	6.3	3.1	0.0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23.1	40.4	21.2	9.6	3.8	1.9	100.0
	법인중심형	16.3	40.7	33.3	6.5	3.3	0.0	100.0
	마을중심형	14.3	53.6	28.6	3.6	0.0	0.0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23.1	34.6	19.2	11.5	7.7	3.8	100.0
	가공중심형	13.5	41.4	37.8	6.3	0.9	0.0	100.0
	체험판매중심형	22.1	47.1	20.6	5.9	4.4	0.0	100.0

## 2.6. 전문인력 채용 경로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전문인력 채용경로를 조사한 결과, ‘개인 네트워크’가 42.0%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 활용이 25.9%, ‘공공기관 인력알선’이 18.0%로 아직까지는 개인적 관계를 통한 채용이 주를 이루었음.

그림 2-24. 전문인력 채용 경로



- 개별특성에 따른 채용경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시작 시기가 최근인 업체일수록 ‘대학연계추천’을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업기간이 길수록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었음.
  -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대학연계추천’을 활용하는 비율이 10.7%였으나, ‘3~10년 미만’은 3.5%, ‘10년 이상’은 0%였음.
  - 사업기간 ‘10년 이상’은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율이 51.6%에 달했으나, ‘3~10년 미만’은 39.8%, ‘3년 미만’은 28.6%로 더 낮았음.
- 조직 유형별로는 개별농가형이 타 유형에 비해 ‘공공기관 인력알선’을 활용하는 비중이 23.6%로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법인중심형은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경우가 50.0%로 타 유형에 비해 많은 편이었음.



표 2-22. 개별특성에 따른 채용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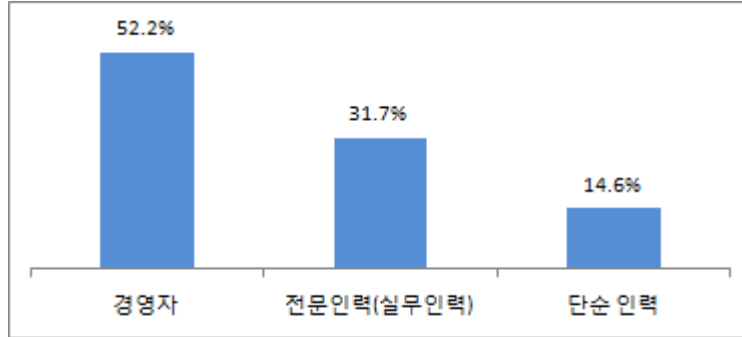
구분		채용경로							
		해당 없음	지역 주민	개인 네트 워크	공공 기관 인력 알선	민간 인력 회사	대학 연계 추천	기타	합계
사업 연 한	3년 미만	10.7	25.0	28.6	14.3	7.1	10.7	3.6	100.0
	3~10년 미만	4.4	27.4	39.8	18.6	3.5	3.5	2.7	100.0
	10년 이상	1.6	23.4	51.6	18.8	3.1	0.0	1.6	100.0
조 직 유 형	개별농가형	1.6	19.5	43.1	23.6	4.9	4.9	2.4	100.0
	법인중심형	7.1	50.0	28.6	14.3	0.0	0.0	0.0	100.0
	마을중심형	7.7	30.8	42.3	15.4	3.8	0.0	0.0	100.0
사 업 유 형	생산중심형	1.8	23.4	44.1	18.9	4.5	5.4	1.8	100.0
	가공중심형	7.4	27.9	38.2	17.6	2.9	1.5	4.4	100.0
	체험판매중심형	11.8	16.2	20.6	11.8	11.8	11.8	16.2	100.0

## 2.7.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경영자·종사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 및 교육·훈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영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정도에 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경영자’가 52.2%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문인력(실무인력)’이 31.7%, ‘단순인력’의 경우 14.6%로 가장 낮았음.

그림 2-25.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 및 교육·훈련 여부



주: 학습 및 교육·훈련 여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의. 이 중 실시정도를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비율임.

- 개별특성에 따른 경영자의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를 보면, 마을중심형이 개별농가형, 법인중심형에 비해 교육·훈련 기회가 적은 편이었음.<sup>5</sup>
- 사업 유형별로 보면 가공중심형이 생산중심형, 체험판매중심형에 비해 경영자에 대한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의 전문성 개발 교육·교육 훈련 여부를 살펴보면, 개별농가형에서 교육·훈련 기회가 보통 이상인 비율이 63.5%로 법인중심형, 마을중심형의 72.3%, 71.4%에 비해 더 낮아 교육 기회가 더 적음.

<sup>5</sup>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 여부를 물어본 조사에서 실시정도를 4점(많은 편), 5점(매우 많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표 2-23. 개별특성에 따른 경영자의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

단위: %

구분		경영자의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많은 편	매우 많음	합계
사업연한	3년 미만	3.6	14.3	32.1	32.1	17.9	100.0
	3~10년 미만	6.2	11.5	29.2	31.0	22.1	100.0
	10년 이상	12.5	4.7	31.3	26.6	25.0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7.7	5.8	26.9	28.8	30.8	100.0
	법인중심형	8.1	11.4	30.1	30.1	20.3	100.0
	마을중심형	7.1	10.7	39.3	28.6	14.3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0.0	3.8	30.8	38.5	26.9	100.0
	가공중심형	10.8	11.7	31.5	27.9	18.0	100.0
	체험판매중심형	5.9	8.8	27.9	29.4	2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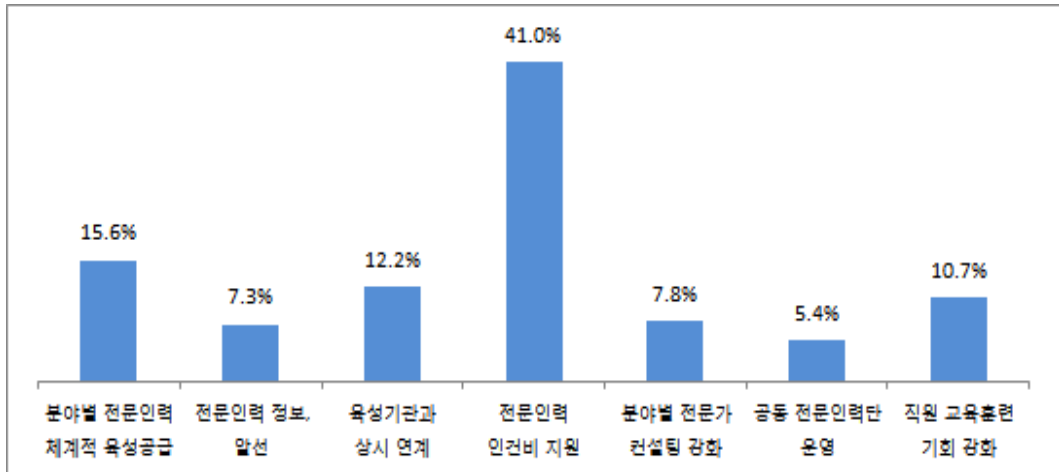
표 2-24.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실무인력)의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  
단위: %

구분		전문인력(실무인력)의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						
		해당자 없음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많은 편	매우 많음	합계
사업연한	3년 미만	7.1	10.7	14.3	35.7	21.4	10.7	100.0
	3~10년 미만	4.4	8.0	15.9	38.1	27.4	6.2	100.0
	10년 이상	4.7	12.5	14.1	40.6	18.8	9.4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9.6	11.5	15.4	38.5	13.5	11.5	100.0
	법인중심형	3.3	9.8	14.6	39.0	27.6	5.7	100.0
	마을중심형	3.6	7.1	17.9	39.3	25.0	7.1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11.5	3.8	19.2	34.6	23.1	7.7	100.0
	가공중심형	4.5	7.2	18.9	42.3	22.5	4.5	100.0
	체험판매중심형	2.9	16.2	7.4	33.8	26.5	13.2	100.0

## 2.8.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 방안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전문성 신장 및 원활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방안을 조사한 결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41.0%로 가장 많았고, ‘분야별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공급’이 15.6%, ‘6차 산업 전문인력 육성기관과 상시 연계’가 12.2% 순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직원 교육·훈련 기회 강화’가 10.7%,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강화’가 7.8%, ‘전문인력 정보 알선’이 7.3%, ‘공동 전문인력단 운영’이 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6.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 방안



-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 방안을 조사한 결과, 마을중심형에서 ‘분야별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공급’과 ‘직원 교육·훈련 기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개별농가형, 법인중심형보다 높았음.
- 사업유형별로는 생산중심형이 ‘분야별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공급’에, 가공중심형이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에 답한 비중이 타 유형에 비해 높았음.

표 2-25.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 방안

단위: %

구분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 방안							합계
		분야별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공급	전문 인력 정보, 알선	육성 기관과 상시 연계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분야별 전문가 건설팅 강화	공동 전문 인력단 운영	직원 교육 훈련 기회 강화	
사업연한	3년 미만	17.9	3.6	10.7	39.3	10.7	3.6	14.3	100.0
	3~10년 미만	15.0	8.0	12.4	40.7	5.3	6.2	12.4	100.0
	10년 이상	15.6	7.8	12.5	42.2	10.9	4.7	6.3	100.0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13.5	5.8	13.5	42.3	7.7	5.8	11.5	100.0
	법인중심형	14.6	8.1	13.0	40.7	8.1	5.7	9.8	100.0
	마을중심형	25.0	7.1	7.1	39.3	7.1	0.0	14.3	100.0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26.9	3.8	15.4	30.8	7.7	0.0	15.4	100.0
	가공중심형	11.7	9.0	10.8	45.0	7.2	6.3	9.9	100.0
	체험판매 중심형	17.6	5.9	13.2	38.2	8.8	5.9	1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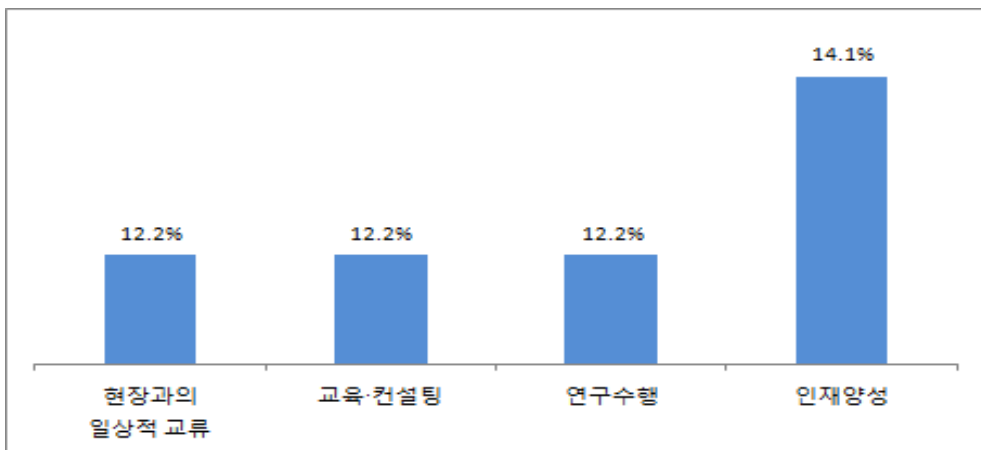
### 3. 농업계 학교 연계 현황

- 농업계 학교 연계 현황에서는 농업계 학교 평가, 농업계 학교 연계 경험, 농업계 학생 고용 경험,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였음.

#### 3.1. 농업계 학교 평가

- 6차 산업화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한 농업계 학교 평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비율이 10% 초반대로 매우 낮아서, 농업계 학교의 기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남.
  - 농업계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인재양성’이 14.1%로 해당 분야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현장과의 일상적 교류’, ‘교육·컨설팅’, ‘연구수행’ 분야에서는 모두 12.2%로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2-27. 농업계 학교 평가



주: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이 중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비율임.

- 개별특성에 따른 농업계 학교의 역할 평가를 조사한 결과, 최근 설립된 업체일수록 다소 ‘인재양성’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교육·자문(컨설팅)’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조직 유형별로는 마을중심형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타 유형에 비해 농업계 학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사업 유형별로는 생산중심형이 전 영역에서 타 유형에 비해 농업계 학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표 2-26. 개별특성에 따른 농업계 학교 역할 평가

단위: %

구분		농업계 학교 역할 평가			
		일상적 교류	교육·자문 (컨설팅)	연구수행	인재양성
사업연한	3년 미만	10.7	7.1	7.1	17.9
	3~10년 미만	12.4	11.5	14.2	15.9
	10년 이상	12.5	15.6	10.9	9.4
조직유형	개별농가형	9.6	11.5	13.5	5.8
	법인중심형	13.0	10.6	9.8	17.1
	마을중심형	14.3	17.9	17.9	14.3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19.2	23.1	15.4	19.2
	가공중심형	10.8	8.1	9.9	16.2
	체험판매중심형	11.8	14.7	14.7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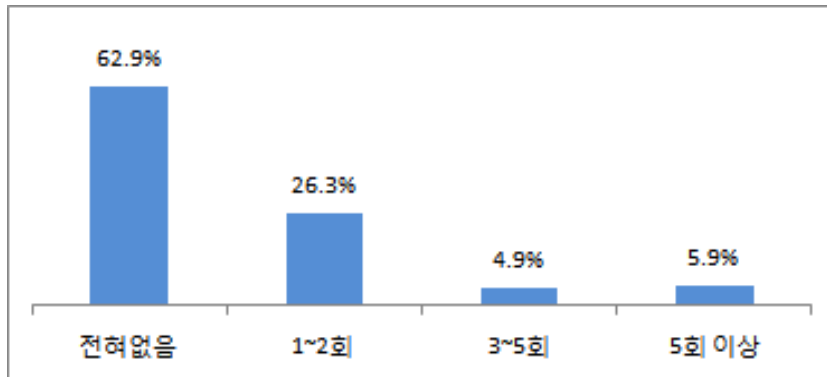
주: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이 중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비율임.

### 3.2. 농업계 학교 연계 경험

○ 6차 산업화 인증 업체 중 농업계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37.1%였으며, 이 중 ‘1~2회’ 연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1~2회’ 연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3%였으며, ‘5회 이상’은 5.9%, ‘3~5회’가 4.9%였음.

그림 2-28. 농업계 학교 연계 경험



○ 개별특성에 따른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사업 연한이 길수록 연계 경험이 많았음.

○ 조직 유형별로는 법인중심형이, 사업유형별로는 체험판매중심형이 타 유형에 비해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7. 개별특성에 따른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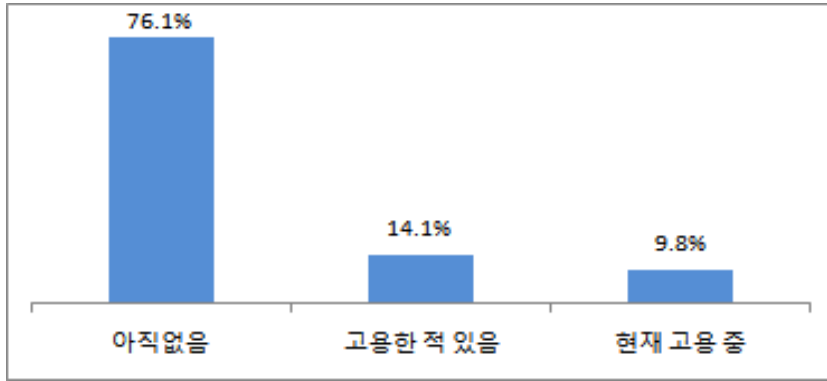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경험				
		전혀 없음	1~2회	3~5회	5회 이상	합계
사업 연한	3년 미만	71.4	25.0	3.6	0.0	100.0
	3~10년 미만	69.0	23.9	2.7	4.4	100.0
	10년 이상	48.4	31.3	9.4	10.9	100.0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75.0	17.3	3.8	3.8	100.0
	법인중심형	57.7	30.9	5.7	5.7	100.0
	마을중심형	67.9	25.0	3.6	3.6	100.0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65.4	23.1	3.8	7.7	100.0
	가공중심형	65.8	27.9	4.5	1.8	100.0
	체험판매중심형	57.4	25.0	5.9	11.8	100.0

### 3.3. 농업계 학생 고용 경험

- 6차 산업화 인증업체 중 농업계 학교 출신 학생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직 없음’이 전체의 76.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과거에 ‘고용한 적 있음’이 14.1%, ‘현재 고용 중’이 9.8%를 차지하였음.
- 개별특성에 따른 농업계 학생 고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사업 연한이 길수록 고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소 많았음.

그림 2-29. 농업계 학생 고용



○ 조직 유형별로 보면 법인중심형이 개별농가형·마을중심형에 비해 다소 농업계 학생 고용경험이 많았음.

표 2-28. 개별특성에 따른 농업계 학생 고용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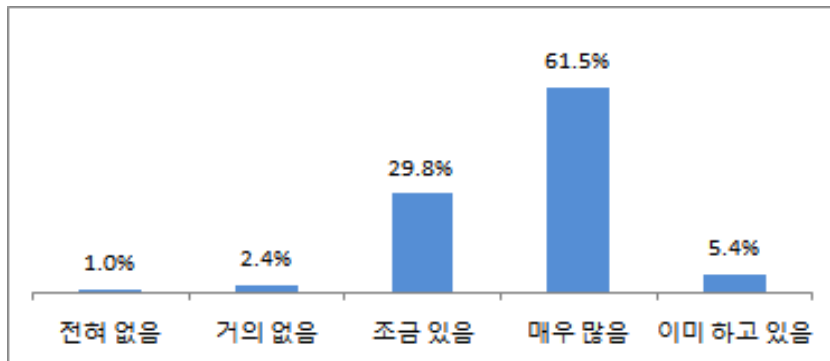
구분		농업계 학생 고용 경험			
		아직 없음	고용한적 있음	현재 고용 중	합계
사업 연한	3년 미만	71.4	21.4	7.1	100.0
	3~10년 미만	81.4	8.0	10.6	100.0
	10년 이상	68.8	21.9	9.4	100.0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82.7	13.5	3.8	100.0
	법인중심형	70.7	15.4	13.8	100.0
	마을중심형	92.9	3.6	3.6	100.0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69.2	11.5	19.2	100.0
	가공중심형	77.5	13.5	9.0	100.0
	체험판매중심형	76.5	16.2	7.4	100.0

### 3.4.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

○ 6차 산업화 인증업체 중 적절한 지원(인건비 보조 및 관련 교육·컨설팅)이 제공된다면 농업계 졸업생이나 귀농자 등을 사업체에 고용하여 이들의 정착을 도울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6.6%가 이미 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5.4%, 참여 의사가 ‘조금 있음’이 29.8%, ‘매우 많음’이 61.5%에 달했음.

그림 2-30.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



- 개별특성에 따른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설립된 업체의 경우 아직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없었으나,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에 대한 의사는 사업 연한이 긴 업체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조직 유형별로는 도제식 창업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개별농가형이 법인중심형, 마을중심형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사업 유형별로는 가공중심형이 도제식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생산중심형과 체험판매중심형에 비해서 다소 낮은 비중을 나타냈음.

표 2-29. 개별특성에 따른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

단위: %

구분		도제식 창업 보육 지원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매우 많음	이미 하고 있음	합계
사업 연한	3년 미만	0.0	3.6	32.1	64.3	0.0	100.0
	3~10년 미만	0.0	2.7	29.2	61.9	6.2	100.0
	10년 이상	3.1	1.6	29.7	59.4	6.3	100.0
조직 유형	개별농가형	1.9	3.8	23.1	63.5	7.7	100.0
	법인중심형	0.8	1.6	32.5	61.0	4.1	100.0
	마을중심형	0.0	3.6	32.1	60.7	3.6	100.0
사업 유형	생산중심형	0.0	0.0	26.9	65.4	7.7	100.0
	가공중심형	1.8	2.7	34.2	57.7	3.6	100.0
	체험판매중심형	0.0	2.9	23.5	66.2	7.4	100.0

### 3.5.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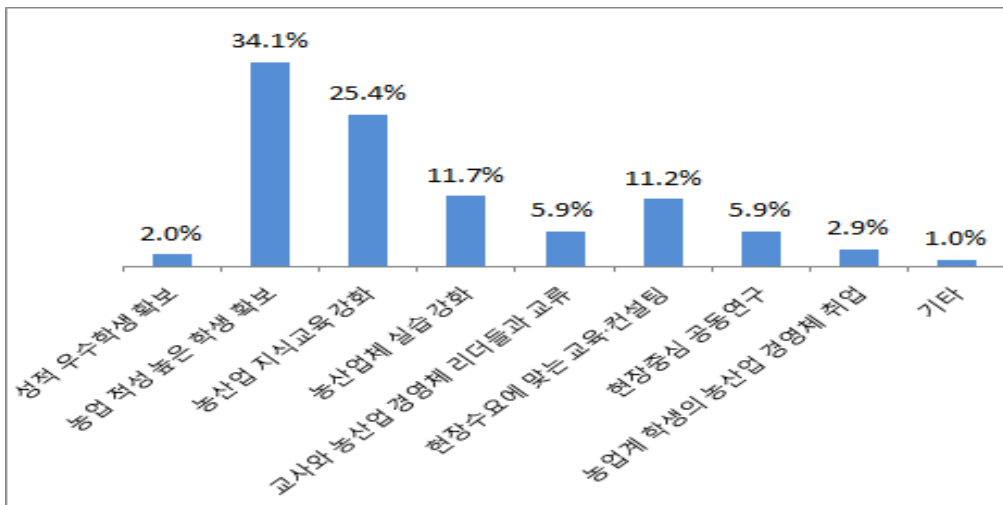
- 6차 산업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서는 1순위로 ‘경영 역량’(23.4%)과 ‘마케팅’(18.5%), 2순위로 ‘마케팅’(15.6%)과 ‘농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15.1%), 3순위로 ‘농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12.7%)과 ‘홍보’(11.2%) 등으로 조사되었음.<sup>6</sup>

6 6차 산업화 인증업체가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

### 3.6.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 6차 산업화 인증업체의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농업 적성 높은 학생 확보’가 34.1%로 가장 많았고, ‘농산업 지식교육 강화’가 25.4%, ‘농산업체 실습 강화’가 11.7%,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컨설팅’이 11.2% 등으로 나타났음.

그림 2-31.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 개별특성에 따른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 연한이 긴 업체일수록 ‘농산업체 실습 강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조직 유형별로는 법인중심형이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컨설팅’, 마을중심형이 ‘농산업 지식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비중이 타 유형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사업 유형별로는 생산중심형이 ‘농산업체 실습 강화’, 가공중심형은 ‘농업적 성 높은 학생 확보’, 체험판매형은 ‘농산업 지식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표 2-30. 개별특성에 따른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단위: %

구분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성 적 우 수 학 생 확 보	농 업 성 능 은 학 생 확 보	농 산 업 지 식 교 육 강 화	농 산 업 체 질 강 화	교 사 와 농 산 업 체 리 더 들 과 교 류	현 장 수 요 에 맞 는 교 육 · 컨 설 팅	현 장 중 심 공 동 연	농 업 계 의 학 생 의 농 산 업 체 취 업	기 타	합 계
사 업 연 한	3년 미만	0.0	39.3	28.6	7.1	3.6	10.7	0.0	7.1	3.6	100.0
	3~10년 미만	3.5	31.9	26.5	8.8	7.1	12.4	8.0	1.8	0.0	100.0
	10년 이상	0.0	35.9	21.9	18.8	4.7	9.4	4.7	3.1	1.6	100.0
조 직 유 형	개별농가형	1.9	34.6	23.1	13.5	7.7	5.8	5.8	3.8	3.8	100.0
	법인중심형	2.4	34.1	23.6	13.0	4.9	13.8	4.9	3.3	0.0	100.0
	마을중심형	0.0	32.1	39.3	3.6	7.1	7.1	10.7	0.0	0.0	100.0
사 업 유 형	생산중심형	7.7	26.9	19.2	23.1	7.7	11.5	0.0	0.0	3.8	100.0
	가공중심형	0.9	39.6	21.6	9.9	5.4	9.9	7.2	4.5	0.9	100.0
	체험판매 중심형	1.5	27.9	33.8	10.3	5.9	13.2	5.9	1.5	0.0	100.0

## 제 3 장

---

###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 조사 개요

- 6차 산업화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체의 기본실태, 사업에 대한 전문성,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현황 등을 조사하여 6차 산업화 관련 전문인력의 현황 및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음.
- 조사대상은 2014년에 정부로부터 ‘농업 6차산업 예비사업자’로 인증받은 업체(379개) 중 사업유형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205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경영주가 53.2%로서 다수이고, 경영주의 연령은 51~60세가 44.9%로 가장 많았음. 또한 남성이 73.7%, 학력별로는 대졸이 39.0%, 다양한 경로를 통한 귀농자가 61.4%로 주를 이루었음. 영농(사업)기반을 승계한 경우가 29.8%였고, 사업체 전문(실무)인력 중 귀농·귀촌자 비중은 10% 미만인 경우가 44.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음.

## □ 사업체 기본 실태

- 사업 연한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가 86.3%이고 10년 이상도 31.2%였으며, 최근 들어 생산중심형과 마을중심형 사업체 설립이 늘고 있는 추세임.
- 조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 52.2%로 가장 많았고 농업회사법인이 22.4%로 그 뒤를 이었음. 최근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조직 유형은 법인중심형이 60.0%, 개별농가형이 25.4%의 순이었고, 특히 가공중심형 사업체 중 법인중심형인 경우가 69.4%로 그 비율이 높았음.
- 주사업을 기준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가공이 51.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육체험관광이 18.0%, 농산물생산이 14.1%로 그 뒤를 이었음. 최근 들어 직판장·직매장의 비중이 늘고 있음.
- 생산액 기준으로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과수가 22.0%, 특용작물이 14.1%로 쌀 등의 식용작물보다 비중이 높았음. 최근 들어서도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의 비중은 줄고 특용작물과 축산 등의 비중이 늘고 있음.
- 사업유형은 가공중심형이 54.1%, 농촌체험·판매중심형이 33.2%였음. 법인중심형 중에 가공중심형이 62.6%로 다수를 차지했음.
- 매출액은 '2억~5억 원 미만'이 24.4%, '5억~10억 원 미만'이 20.5%였으며, 법인중심형, 가공중심형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생산중심형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았음.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0~20%'인 경우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개별농가형, 체험판매중심형에서는 높고, 마을중심형과 가공중심형은 낮았음.



- 인력현황은 상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 노동인력이 1.6명(본인 제외), 급료를 주는 상근 고용자가 5.7명, 연간 고용하는 임시 고용자가 5.4명으로서 총 12.6명이었음.
  - 가족 노동인력은 ‘1명’이 37.1%, ‘사업주 이외 없음’이 25.9%였으며, 상근 고용자의 경우 ‘1~5명 이하’인 경우가 50.7%였음.
  - 개별농가형은 가족 노동인력 활용하는 비율이 96.2%로 가장 높고, 상근 고용자를 고용하지 않는 비율이 44.2%여서 주로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법인중심형과 체험판매중심형은 가족 노동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30.9%와 23.5%로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상근 고용자를 3명 이상 고용하는 비중도 각각 69.1%와 64.9%로 가족 노동력보다는 상근 고용자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단, 상근 고용자를 확보하는 지역은 법인중심형이 ‘동일 시·군’ 또는 ‘타 지역’에서 확보하는 비율이 60.1%였던 것에 반해, 체험판매중심형은 ‘마을 내’와 ‘동일 읍·면’에서 확보하는 비율이 52.0%여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사업 발전단계는 ‘발전기’로 답한 비율이 64.9%로 전반적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향후 사업규모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비율이 각각 89.3%, 90.3%로서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 마을중심형의 경우 대규모로 확장하겠다는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남.
-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시설자금’이 57.4%, ‘운영자금’이 42.2%, ‘판로 개척’이 40.7%로 주를 차지하였음.
  - 전체적으로 사업시작 초기에 ‘원료 농산물 확보’와 ‘상품 및 기술개발’과 같은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확충 및 시설 자금’이나 전문·단기 노동인력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보임.

- 한편, 가공중심형이 ‘운영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53.2%, 체험판매중심형이 ‘인허가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25.4%로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사업 전문성 및 개별요구

- 6차 산업화 인증업체는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생산과 관련있는 부문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홍보·정보화’, ‘마케팅’, ‘경영전략·재무’ 등 경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객 서비스’(71.7%), ‘품목 생산기술’(69.3%), ‘품질관리·위생·식품법규’(63.9%) 영역에서는 전문성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특허·법률’(18.0%), ‘홍보·정보화’(26.3%), ‘마케팅’(27.3%) 등에서는 전문성이 높다는 비율이 낮았음.
  - 단, 생산 관련 부문 중에서도 ‘가공공정·자동화’는 전문성이 높다는 비율이 37.1%에 그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설립된 사업체일수록 ‘경영전략·재무’, ‘마케팅’, ‘특허·법률’,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필요로 하는 전문성은 ‘마케팅’이 28.8%, ‘경영전략·재무’가 14.1%, ‘홍보·정보화’가 13.2%, ‘가공공정·자동화’가 12.7%로서 사업체의 전문성이 낮은 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는 1순위가 ‘시·군·도청’(39.0%) 및 ‘농업 관련 공공기관’(39.0%)이었고, 2순위는 ‘농업 관련 공공기관’(24.9%)와 ‘6차 산업 중간지원조직’(20.5%)으로 주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일부 민간조직의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의 69.8%에 달하는 사업체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해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드러남.
- 한편, 실제로 전문(실무)인력을 두고 있는 경우는 57.1% 수준이었으며, 그 분야는 ‘농촌관광 및 체험운영(41.0%)’과 ‘경영전략·재무(39.3%)’, ‘품목 생산기술(30.8%)’, ‘가공공정·자동화(28.2%)’ 등이었음.
  - 또한 사업 연한이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디자인’, ‘고객서비스’, ‘교육·조사·연구’ 등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사업체의 87.3%가 향후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문인력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현재 채용계획이 없는 사업체 중에서도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채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중이 93.2%에 달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전문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은 월 218만 원 수준이나 실제 지급되는 보수는 165만 원으로 적정 수준의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음.
- 전문인력 채용경로는 ‘개인 네트워크’가 42.0%, ‘지역주민’ 활용이 25.9%, ‘공공기관 인력알선’이 18.0%로 개인적 관계를 통한 채용이 주를 이루었음.
  - 최근 설립된 사업체일수록 ‘대학연계추천’을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설립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경영자’가 52.2%, ‘전문인력(실무인력)’이 31.7%로서 경영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정도에 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특히, 전문인력의 전문성 개발 교육·훈련 여부를 살펴보면 개별농가형에서 교육·훈련 기회가 보통 이상인 비율이 63.5%로서 법인중심형·마을중심형이 각각 72.3%, 71.4%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성 신장 및 전문인력 공급 방안으로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41.0%, ‘분야별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공급’이 15.6%, ‘6차 산업 전문인력 육성기관과 상시 연계’가 12.2% 순으로 나타났음.

#### □ 농업계 학교 연계 현황

- 농업계 학교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비율이 모든 영역에서 10%대로서 매우 낮아 농업계 학교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남. 단, 마을중심형·생산중심형에서는 타 유형에 비해 농업계 학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음.
- 농업계 학교와 6차 산업화 인증업체 간 연계 경험은 ‘전혀 없음’이 62.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별농가형은 연계 경험이 없는 비율이 75.0%로서 타 유형에 비해 더욱 저조하였음.
- 농업계 학교 출신 고용 경험은 ‘아직 없음’이 76.1%, 과거에 ‘고용한 적 있음’이 14.1%, ‘현재 고용 중’이 9.8%를 차지하여서 농업계 학생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음.
- 한편, 적절한 지원(인건비 보조 및 관련 교육·컨설팅)이 제공될 경우 농업계 학교 졸업생이나 귀농자 등을 고용하여 이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 의사가 있는 비율이 96.6%에 달했음.

- 6차 산업화 인증업체는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는 ‘경영 역량’, ‘마케팅’, ‘농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꼽았음.
-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농업 적성 높은 학생 확보’가 34.1%, ‘농산업 지식교육 강화’가 25.4%, ‘농산업체 실습 강화’가 11.7% 등이었음.

## 2. 시사점

### □ 최근 들어 6차 산업화 인증 사업체의 속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기존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다수였으나 최근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법인중심형 사업체의 수와 비중이 확대될 전망
- ‘농산물 가공’을 주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직판장·직매장’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됨.
- 생산액 기준으로 주농산물은 ‘과수’(22.0%)와 ‘특용작물’(14.1%)이고 최근 들어 ‘특용작물’과 ‘축산’ 등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 매출액 규모는 ‘10억 원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사업규모는 작은 편이나 영업이익률은 ‘10~20%’인 경우가 많아 수익성은 양호하며, 대부분의 사업체가 향후 사업규모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매출액도 증대될 가능성이 큼.
  - 사업규모와 사업영역이 확대될 경우 이에 따라 전문인력의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큼.

- 6차 산업화 인증업체는 생산 관련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마케팅, 재무 등과 같은 경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낮게 나타나 이들 영역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
  - 부족한 전문성 보완을 위해 협력하는 조직 및 기관으로는 여전히 지자체 및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 공공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 및 교육·훈련이 아직까지는 경영자에 보다 집중되어 있어 이를 전문인력에까지 확대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6차 산업화 사업체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향후 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인건비 지원 등이 시행된다면 고용규모 확대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공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법인중심형과 체험판매중심형은 상근 고용자를 3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체험판매중심형의 경우 ‘마을 내’와 ‘동일 읍·면’ 등의 인근 지역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큼. 한편, 체험판매중심형의 애로사항으로서 ‘인허가 등 규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체험판매중심형 사업체의 증대와 함께 지역 내 고용창출이 확대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다수의 사업체가 향후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문인력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
  - 한편, 현재 채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이 시행될 경우 채용할 의

향이 있다는 비중이 93.2%에 달해 적절한 수준의 인건비 지원이 시행될 경우 전문인력 채용규모가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큼.

- 현재 전문인력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65만 원 수준이나 적정 보수 수준은 218만 원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격차가 전문인력 채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전문인력 채용경로는 아직도 개인적 관계를 통한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효과적인 매칭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신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기관 인력알선’이나 ‘대학연계추천’ 등의 채용경로도 더욱 활성화할 필요

□ 농업계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6차 산업화 사업체와의 연계 및 고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장수요에 기반한 지식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 등을 더해 나가야 할 것임.

○ 농업계 학교에 대한 평가는 모든 유형의 사업체에서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이로 인해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았음. 단, 적절한 지원(인건비 보조 및 관련 교육·컨설팅)이 제공될 경우 농업계 학교 졸업생을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상당히 높았음.

○ 6차 산업화 사업체는 농업계 학교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농산업 지식교육 및 실습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농업에 대한 적성 적합도가 높은 학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학교 교육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6차 산업화 사업체는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 전문인력 육성기관과의 상시적 연계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처럼 농업계 학교는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함과 동시에 이들의 상시적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6차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해야 할 것임.

## 부 록

---

### 농업 6차 산업화 인증업체 전문인력 실태 조사지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식품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농업 6차 산업화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조사결과는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므로 신상자료가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구책임자에게 문의바랍니다.

2015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문의사항]

마상진 연구위원 (061-820-2258 msj@krei.re.kr)

---



※ 질문을 잘 읽고 해당란에 표시(○ 또는 √)하시거나 직접 써주십시오.

### □ 사업체 기본 실태

○ 귀 사업체가 현재와 같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 )년 ( )월

○ 귀 사업체의 조직 형태는?

① 개인 ② 농업회사법인 ③ 영농조합법인 ④ 마을기업 ⑤ 주식회사 ⑥ 협동조합 ⑦ 기타

○ 귀 사업체의 조직 구성 유형은 다음 어디에 가깝습니까?

① 개별농가형 ② 법인중심형 ③ 마을중심형 ④ 시·군 주도형

○ 귀 사업체의 사업 내용은?(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농산물 생산                      ② 농산물 가공                      ③ 식당(외식)                      ④ 숙박  
 ⑤ 온라인판매(직거래)              ⑥ 직판장/직매장                      ⑦ 교육·체험·관광              ⑧ 농작업대행  
 ⑧ 기타 ( )

○ 상기 사업내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번호 기입 ( )

○ 귀 사업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목은?(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쌀                                      ② 쌀 이외 식량작물(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콩 등)  
 ③ 채소                                      ④ 과수                                      ⑤ 과채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오이, 풋고추)  
 ⑥ 산나물                                      ⑦ 특용작물 (인삼, 참깨, 들깨, 땅콩 등)  
 ⑧ 약용작물                                      ⑨ 화훼                                      ⑩ 한우                                      ⑪ 돼지  
 ⑫ 젓소                                      ⑬ 닭                                      ⑭ 오리                                      ⑮ 기타( )

○ 상기 품목 중에 가장 생산액이 많은 것은? 번호 기입 ( )

○ 중점 사업품목, 매출액 비중 등을 고려 시, 귀 사업체의 사업 유형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① 농산물 생산 중심형 ② 농산물 가공 중심형 ③ 농촌 체험·판매 중심형

○ 2014년 귀 사업체(법인)의 매출액의 대략적 규모는? ( )억 원

○ 2014년 귀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대략 몇 %라고 평가하십니까? ( )%

○ 귀 사업체의 연간 인력·운영 현황은?

-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가족 노동인력: 본인 이외 ( )명

- 급료를 주는 상근 고용자: ( )명

- 연간 고용하는 임시 고용자: 대략 ( )명 × ( )일

○ 귀 사업체 상근·임시 인력은 지역적으로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 상근 고용자(실무 인력) : ① 마을 내 ② 동일 읍·면 ③ 동일 시·군 ④ 다른 시·군

- 임시 고용자: ① 마을 내 ② 동일 읍·면 ③ 동일 시·군 ④ 다른 시·군

○ 귀 사업체 활동(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 )가구

○ 귀 사업체의 6차 산업화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 발전단계를 자체 평가한다면?

① 창업기 ② 발전기 ③ 정착기

#### □ 사업 전문성 및 개별요구

○ 귀 사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을 두 개만 골라주십시오.

① 시설 확충 등 시설 자금

② 운영 관련 자금

③ 판로 개척

④ 인허가 등 규제

⑤ 전문인력 확보

⑥ 단기 노동 인력 확보

⑦ 기술 개발

⑧ 경영 능력

⑨ 주변 참여 농가의 유도

⑩ 가공·판매를 위한 원재료(농산물) 확보





- 귀 사업체는 경영자, 종사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이나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인력 유형	해당자 없음	교육·학습 실시정도				
		전혀 없음	←	보통	→	매우 많음
경영자	①	②	③	④	⑤	
전문 실무 인력	①	②	③	④	⑤	
단순 노동인력	①	②	③	④	⑤	

- 귀 사업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어떠한 경로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① 채용하지 않음(기존 인력이 분담) ② 인근 지역주민 활용 ③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④ 공공기관 인력알선 ⑤ 민간 인력회사 활용 ⑥ 대학 연계를 통해 추천  
 ⑦ 기타 ( )

- 귀 6차 산업관련 사업체의 전문성 신장 및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분야별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공급  
 ② 분야별 전문인력 정보 제공 및 알선 강화  
 ③ 6차 산업 전문인력 육성기관(대학 포함)과의 상시적 연계 강화  
 ④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⑤ 6차 산업 전문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강화  
 ⑥ 권역별·사업분야별 사업체 공동의 전문인력단 운영  
 ⑦ 현 직원들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개발 기회 강화  
 ⑧ 기타 ( )





○ 귀 사업체 경영주(대표)의 학교에서의 전공은?

- ① 전공 없음 ② 언어·인문계열 ③ 경제·경영계열 ④ 사회과학 ⑤ 교육계열
- ⑥ 공학계열 ⑦ 자연과학 ⑧ 농학 ⑨ 의료계열 ⑩ 예체능계열

○ 귀 사업체 경영주(대표)의 연령은? 만 ( )세

○ 귀 사업체 경영주(대표)의 성별? ① 남 ② 여

○ 귀 사업체 경영주(대표)는 귀농·귀촌하셨습니까? 하였다면 그 유형은?

- ① 농촌 출생 → 도시 취업 → 고향 귀농 ② 농촌 출생 → 도시 취업 → 타 지역 귀농
- ③ 도시 출생 → 도시 취업 → 귀농 ④ 해당없음

○ 귀 사업체 경영주는 부모님의 영농기반/사업기반을 물려받았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귀 사업체 운영에 중요하게 일하는 실무 인력 중에 귀농·귀촌자 비중은?

- ① 10% 미만 ② 10~30% ③ 30~50% ④ 50~70% ⑤ 70~90% ⑥ 90% 이상

- 감사합니다 -



R750 연구자료-1

## 6차 산업화 인증업체 전문인력 실태 조사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12.  
발 행 2015.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빗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이호문화사(프리비)  
061-332-1492 <http://www.pribe.co.kr>

---

ISBN 978-89-6013-849-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